

2025 Vol.24

UNIVERSITY INNOVATION SUPPORT PROJECT NEWSLETTER

대학혁신지원사업 뉴스레터



CONTENTS

대학혁신지원사업 뉴스레터

2025 Vol.24

발행일 | 2025. 8.31

발행인 | 이주열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장

발행처 |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50834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 197,

PRIME의 생명공학관 106호

TEL. 055)320-3216 TFX. 055)320-3207

E-mail. uispc0624@gmail.com

www.uispc.org

인쇄 | 대양프린팅

기고문

- 04 대학혁신지원사업, 한국 고등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조건
울산대학교 기획처 기획처장_ 박주식
- 06 전공자유선택 입학시대와 '다전공 제도'
한신대학교 전공설계지원센터장 / 교수_ 박혜영

성과사례

- 08 2025학년도 KNU 직무페스티벌(Job Fair)
강남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팀원_ 류재신
- 12 2025학년도 여름방학 집단상담, 향기로운 마음챙김, 관계에서 만나는 나
강남대학교 마음나눔센터 팀원_ 서명석
- 16 AI 기반 맞춤형 전공·진로 탐색 서비스 Young熊+(영웅플러스) 도입
단국대학교 교육혁신원 교육성과평가센터 연구교수_ 김난옥
- 18 AI와 함께 성장하는 나의 학습법! 「AI를 활용한 나의 학습법 노하우 공모전」성료
대구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전임연구원_ 전재민
- 22 [DU 인성 함양 프로그램] “같이”의 힘으로, “함께” 머무는 대학
‘관계 형성부터 전공선택과 공동체 체험까지’ 참여 기반 학생문화 혁신 모델
대구대학교 학생문화팀 계장_ 김병래
- 26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융합형 인재 양성 미래지향적 학사제도 혁신 사례
대구한의대학교 교무인사팀 담당_ 김보경
- 30 학업 저성취 학생들을 위한 학습역량 Level up 프로그램
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혁신추진단 담당_ 백채현
- 32 2025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전공설명회 개최
-관심 전공을 한 자리에서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 김태호PD의 스페셜 특강을 통해 진로 탐색의 다양한 사례 공유 -
서울여자대학교 신입역량 상화센터 직원_ 윤정미
- 36 인천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맞춤형 심리지원 프로그램 : 마음건강 봉사캠프
인천가톨릭대학교 학생상담센터 부센터장_ 심교린
- 40 JUNI:ON, 학생과 혁신을 잇다 전주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서포터즈 운영 사례
전주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 담당_ 문중현
- 44 구성원 참여 기반 아이디어 발굴 및 실행을 통한 Bottom-up 혁신문화 확산
포항공과대학교 혁신사업단 대학혁신사업팀 책임연구원_ 이홍승
- 46 황혼에 날아오른 미네르바의 부엉이처럼 HUFSpeech, 스피치의 가치를 깨닫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지원팀 담당_ 정예린
- 50 연구하는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한동대학교 학부생 논문 연구 지원 사업
한동대학교 비교육혁신원(교육혁신팀) 연구원_ 연의송



- 54** 2024학년도 교육만족도 조사 및 Hallym Census 등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계획
한림대학교 조사연구부 연구원_ 김도경
- 58** “런던에서 배우고 시장에서 검증하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한 실전형 글로벌 창업교육 사례
한성대학교 창업지원센터 센터장_ 홍성재
- 62** 전공으로 미래를 설계하다! 2025 HY ERICA 전공페스티벌 개최
한양대학교 ERICA LIONS칼리지 RC 직원_ 김가영
- 66** ‘실습에서 실전으로, 준비된 전문가의 마음을 돌보다’ 실습수업 경험학생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호원대학교 심리상담센터 팀원_ 이도은

학생사례

- 70** 구슬처럼 빛난 한 학기, KU자유전공학부에서 찾은 나의 이야기
건국대학교 KU자유전공학부 학생_ 최수진
- 74** 인공지능을 곁들인 경영학, 이분법적 전공 분류에서 벗어나다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학생_ 박세람
- 78** 함께 들고, 함께 성장하다 ‘또래 Together’가 남긴 변화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학생_ 최은희
- 82** 시시대, 나의 학습법이 달라졌다 2025-1학기 DEU 학습법 특강
동의대학교 공과대학 산업ICT기술공학 학생_ 김지현
- 84** 도전학기제(꿈드림설계) 참여 후기
배재대학교 시소프트웨어공학부 정보안전학전공 학생_ 정우진
- 88** PSC학습공동체 에세이(기억과 공존의 다리)
부산외국어대학교 글로벌자유전공학부 학생_ 박초윤
- 90** 글로벌서비스러닝 에세이(공항 이용객 대상 서비스 지원 및 편의 증진 봉사활동)
부산외국어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학생_ 이민지
- 94** 그린빈 카페, 지구를 담은 한 잔
삼육대학교 창의융합자유전공학부 학생_ 김태희
- 96** 학생에서 혁신가로 ‘학생교육혁신단’ 우리의 성장보고서
숙명여자대학교 공과대학 소프트웨어학부 데이터사이언스전공 학생_ 김현수
- 98** 부산-경남권 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 6개 대학 시뮬레이션 기반 전문직 간 협력 교육
연수프로그램 참여 후기
인제대학교 간호학과 학생_ 이예림
- 104** 일상 속 불편함을 창업 아이템으로 전환하다.
Turning Everyday Inconveniences into a Business Idea.
청주대학교 지적학과 학생_ 서미경
- 106** 학생의 시선으로 놓은 교육의 다리 - 재학생 교육 기획·평가단 활동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학생_ 최정민

대학혁신지원사업, 한국 고등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조건



박주식

울산대학교
기획처
기획처장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세계가 주목하는 고도성장을 이뤄냈다. 그러나 그 성장은 단순히 자본이나 천연자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 즉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에 기초한 성장이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던 힘도,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배경도 모두 인재 양성에 대한 과감한 사회적 투자의 결과였다.

지금 한국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학령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답은 여전히 "사람"이며, 그 핵심은 교육 투자, 특히 고등교육 투자에 있다.

OECD 「2023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2023)」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비율은 0.6%로, OECD 평균인 0.9%에 크게 못 미친다.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지출액 역시 약 12,225달러로, OECD 평균인 약 17,559달러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세계 각국이 지식기반사회로 전환하면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다는 신호다. 교육을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온 나라가 정작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가 역량의 약화 가능성을 예상하도록 한다.

한편, 초·중등 교육에는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상기 지표에 따르면, GDP 대비 초·중등 공교육비 정부 부담 비율은 3.1%로 OECD 평균과 동일하다. 기초 교육 단계에서는 충분한 공적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고등교육의 경우 정부 부담률은 38.3%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이 약 66%임을 감안하면, 나머지 60% 이상을 학생과 가정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다시 말해 한국의 대학 교육은 정부가 아닌 학생과 가정의 희생 위에서 있는 셈이다. 그 결과 총 GDP 대비 공교육 투자 구조를 보면 초·중등이 고등교육보다 5배 이상 많은 기형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앞마당은 잘 가꿔놓고 정작 집안은 방치하고 있는 격이다.

등록금은 2009년 이후 17년째 동결되어 있고,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마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마저 지금처럼 OECD 평균에 못 미친다면 대학의 경쟁력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하다. 실제로 지방 대학 상당수는 정원 미충원으로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 있다. 재정난은 곧 교육과 연구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늘어나고, 교육 인프라 확충은 지연되며, 연구 활동은 축소된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혁신 역량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위기 속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은 큰 의미를 지닌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단순한 재정 보조가 아니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정적 기반이다. 특수목적재정지원사업이 정부가 제시한 과제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 스스로 전략을 세우고 재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성과 관리 체계를 통해 책임성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특히 지역대학의 경우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존립을 지탱하는 안전망 역할을 한다. 또한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일회성 성과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와 체질 개선을 유도한다. 교육과정 개편, 학생 지원 강화, 산학협력 모델 창출 등은 단기간에 끝나는 과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혁신이며, 일반재정지원의 성격을 가진 대학혁신지원사업이야말로 이를 가능하게 한다.

나아가 대학혁신지원사업이 단순한 재정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효과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대학별 특성과 지역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는 맞춤형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 대학의 여건이 다른 만큼 동일한 기준의 획일적 지원보다는 지역과 대학 규모, 특성화 전략에 따라 차등적·선택적으로 지원하는 유연성이 요구된다.

둘째, 성과 관리 체계를 합리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단기 성과 지표에 매몰되기보다는 대학의 장기적 혁신 방향과 구조적 개선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마련되어야 하며, 평가 과정 또한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본질적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재정은 대학 내부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혁신, 교수학습 지원, 연구 인프라 강화, 산학협력 플랫폼 구축 등 핵심 분야에 전략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단순한 예산 집행 사업이 아니라 대학이 지속가능한 혁신 역량을 확보하도록 이끄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이제 한국 고등교육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투자의 규모를 늘리는 것과 함께 그 운용 방식에 있어서도 대학 자율성과 책임성, 지역 균형 발전, 지속가능한 성과 창출이라는 원칙이 확립될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온전히 실현될 것이다.

전공자유선택 입학 시대와 ‘다전공 제도’



박혜영

한신대학교
전공설계지원센터장
교수

전공자유선택제, 다전공제도와 함께하면 융복합 교육혁신과 기초학문 보호 가능해져

최근 대학가의 화두는 ‘전공자유선택제(일명 무전공 입학)’다. 정부는 학생들의 진로 유연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해 이 제도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들은 1년 정도에 걸쳐 다양한 교과를 탐색한 후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정책은 대학의 기초학문(인문학과 자연과학 등)을 학생들의 선택지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흐름은 대학의 존재 이유인 ‘학문의 다양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기초학문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교수자로서도 우려가 아닐 수 없다.

다전공 의무화가 가져온 변화들

한신대학교는 이러한 우려를 타개하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다전공 의무화’를 도입했다. 2학년 진학 전에 제1전공에 더해 제2전공을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한 것이다. 다만, 2전공은 복수/융합전공 외에도 부전공이나 마이크로 전공으로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다전공 의무화’를 도입하고 나자 우선 매년 실시해 오던 신입생 전공박람회에서 의미 있는 변화들이 발견되었다. 전체 상담 건수가 2024년 2,640건에서 2025년 6,945건으로 263% 증가했다. 학생 1명당 상담 건수가 2.6회에서 5회로 증가한 것이다. 각 전공별 부스에서도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발생했다. 신학 전공 부스에 공학 지망생들이 찾아왔고, 철학, 어문학 등 인문학 전공들의 상담 인원이 2배 정도 증가했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궁금증 탓인지 교무행정 관련 상담은 6.8배 증가했다. 희망하는 다전공 이수 형태도 다양했다. 복수/융합전공 수준을 희망하는 학생이 76%로 가장 많았고, 부전공이 16.7%, 마이크로 전공이

7.3%였다. 다전공 의무화가 학문 간 융복합 촉진은 물론 기초학문 보호에도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변화들이었다. 실제로 학생들은 “한 전공만으로는 미래가 불안하다”, “융합적 역량을 위해 기초학문도 공부하고 싶다”라며 전공 상담을 신청한 이유에 답했다.

이는 학생들이 단일 전공의 한계와 불확실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다전공이 제공하는 학문적 융합 가능성에 관심이 있다는 방증이다. 실제, 사회복지학과 컴퓨터공학의 결합, 경영학과 어문학(영문학, 중문학 등)의 만남은 전통적인 전공 구분 속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경력을 가능하게 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할 줄 아는 사회 복지사, 현지 문화에 정통한 경영자의 양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기업에서도 ‘T자형 인재(T-shaped talent)’, 즉 한 분야의 깊이 있는 전문성과 더불어 폭넓은 이해력을 가진 인재를 선호한다. 기초학문은 이러한 인재의 폭넓은 기반을 만드는 토대가 될 가능성을 선사해 줄 열쇠이다.

글을 맺으며

대학의 자구책, 정부의 지원이 함께 가야

전공자유선택제는 학생이 대학을 선택하는 시대의 한 흐름이 되었다. 대학은 이를 수용하는 동시에 기초학문 보호를 통해 학문적 다양성 생태계를 유지하고 학생들에게는 융복합 교육 기반을 제공해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다. 이에 ‘다전공 의무화’는 학생들에게는 폭넓은 융복합 전공 설계의 가능성을 제공하며, 대학에는 학문적 다양성을 되살리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다전공 교육 체계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려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다전공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기 위한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대학들이 더 적극적으로 기초학문을 포함한 융합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초학문은 비단 대학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더더욱 그렇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력은 기초학문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이는 드물 것이다. 이제 대학과 정부의 공동 노력으로, 전공자유선택 시대를 여는 가운데서도 기초학문 보호와 융복합 교육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혜를 기대해 본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2025학년도 KNU 직무페스티벌(Job Fair)



류재신

강남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팀원

강남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5월 13일(화)부터 14일(수)까지 2일간 샬롱관에서 KNU 직무 페스티벌(Job Fair)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직무·진로 상담, 현직자의 직무 멘토링, 진로 탐색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1,6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2025학년도 KNU 직무페스티벌(Job Fair)

고민하던 진로, 실무를 만나다

본 행사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직무를 직접 체험하고, 재학생들이 졸업생 현직자와의 소통을 통해 현실적인 조언을 얻고, 다양한 진로를 탐색해 봄으로써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실전형 진로탐색 학생지원 프로그램이다.

구분	1일차(2025.05.13)			2일차(2025.05.14)		
	직무 분야 및 기관명	참여인원(명)		직무 분야 및 기관명	참여인원(명)	
		재학생	지역청년		재학생	지역청년
직무부스	영업기획 (아우토슈타트)	19	1	물류기획 (SSG.COM)	27	0
	자산신탁관리 (무궁화신탁)	18	1	금융사무 (NH농협은행)	43	1
	문화예술행정 (서울문화재단)	37	0	프론트엔드개발 (안랩)	19	0
	공공기관 (근로복지공단)	31	0	사회복지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32	0
	백엔드개발 (넥슨)	29	0	재무회계 (S파워)	47	1
	NGO 사회공헌 (따뜻한동행)	16	0	게임마케팅 (샌드박스)	49	0
	인사HR (삼점삼)	15	1	프로덕트디자인 (이십사점오)	26	0
부대부스	참여 안내 본부	252	7	참여 안내 본부	312	4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24	0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60	0
	고용정책	54	0	고용정책	39	0
	취업상담	95	0	퍼스널컬러	105	0
	MBTI 향수만들기	83	0	병역진로설계	134	0
	지문인적성	56	0	지문인적성	46	0
참여인원	계	729	10	계	939	6

▮ 다양한 직무분야가 한자리에

이들간 운영된 직무 부스에서는 아우토슈타트, NH농협은행, 넥슨, 서울문화재단, 안랩, 샌드박스 등 총 14개 기관이 참여하여 각 직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특히 강남대학교 출신의 졸업생들이 현직자로 직접 참여해, 실무 현장에서 경험한 현실적 조언과 인사이트를 전달한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이었다.

구분	영업·물류기획	금융·신탁사무	공공기관	문화예술·디자인	개발·게임마케팅	인사·HR	NGO 사회공헌
참여 기관	아우토슈타트, SSG.COM	NH농협은행, 무궁화신탁, S파워	근로복지공단,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서울문화재단, 이십사점오	넥슨, 안랩, 샌드박스	삼점삼	따뜻한 동행
주요 운영 내용	① 직무별 현직자 멘토링 관심 분야의 실무자들과 직접 만나,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기회 마련 ② 채용전형 및 취업 노하우 전달 각 기업의 채용정보와 전형절차 시 유의할 점, 직무별 실제 수행 업무, 채용 트렌드, 실직적 필요 역량 및 취업 준비 방법 등 안내						



▮▮ 진로 탐색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부대 프로그램도 ‘좋은 호응’

강남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진로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안내, 현장 실습 참여 방법 등의 상담도 함께 진행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자 MBTI 향수 만들기, 퍼스널컬러 진단, 지문 인적성 검사, 병역 진로 설계, 청년고용정책 안내 등 다양한 체험형 부대부스도 함께 운영되어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었다.

▮▮ 만족도 4.6점! 진심어린 선배의 멘토링

2025 KNU 직무페스티벌 참여자의 프로그램 만족도(5점 척도)는 4.6점을 기록했다. 참여 학생들은 “막연했던 진로 고민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현직 선배들의 현실적인 조언과 자기소개서 작성법부터 면접의 팁까지 꼼꼼하게 알려주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유수 기업의 현직 선배로부터 지도를 받다 보니 취업에 대한 자신감과 진로 선택에 대한 동기도 높일 수 있었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또한, 차기 행사 시 행사 시간의 확대, 모의 면접 운영, 이력서 클리닉 확대, 학과별 맞춤형 직무 부스 운영 등 다양한 개선 요청과 제안도 접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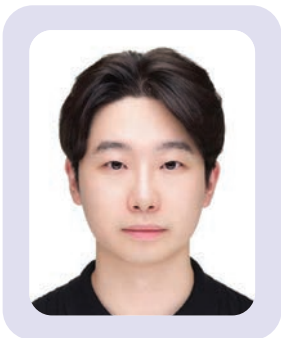


이번 직무페스티벌은 학생들의 진로 고민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강남대학교를 졸업한 현직 선배의 직무 멘토링, 진로 탐색 및 관심을 위한 체험형 부스 활동 등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던 실전형 진로, 직무 탐색의 장이었다. 강남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는 앞으로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학생 개개인의 진로 설계와 취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2025학년도 여름방학 집단상담, 향기로운 마음챙김, 관계에서 만나는 나



서명석
 강남대학교
 마음나눔센터
 팀원

강남대학교 마음나눔센터에서는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자기이해 증진을 위해 2025학년도 1학기 여름방학 기간(2025.06.17.~2025.07.16.) 동안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자기이해 증진 및 대인관계 능력 개발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였다. 이번 집단상담은 아로마테라피 명상과 대인관계 향상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각각 ‘향기로운 마음챙김 명상’과 ‘애착과 연애, 근데 이제... TCI(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를 곁들인’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의 스트레스 완화와 관계 형성 및 개선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였다.

모집 공고					
신청 인원	집단상담 별 모집인원 내 신청순				
신청 방법	참인제시스템 > 비교과프로그램(부서명 : 마음나눔센터 검색) <-> 신청하고 싶은 '집단상담' 선택 <-> 해당 집단상담 신청한 이유 작성				
신청 기간	05/26(월) ~ 집단 별 시작 3일 전까지				
참가 확정	선발 인원에게 별도 문자 알림				
비교과 마일리지	- 출석률 80% 이상시 수료인정 - 수료 후 만족도조사 완료 시 시간당 비교과 마일리지 10점 지급				
활동 종류		강남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그룹	집단상담 제목	세부 주제	인원	상담사	진행방식
1 그룹	아로마테라피 "향기로 가벼워지는 하루"	스트레스 완화	10명	강민주 상담사	대면
2 그룹	"애착과 연애, 근데 이제... TCI를 곁들인"	대인관계 향상	10명	서명석 상담사	대면
문의		마음나눔센터(031-899-7205 msseo95@kangnam.ac.kr			

구분	프로그램 운영 개요
운영 기간	2025.06.17.(화)~2025.07.16.(수)
운영 장소	인문사회관 집단상담실 227호
진행 방식	매주 1회, 2시간~2시간 30분
신청 방법	참인재시스템 내 비교과프로그램(부서명: 마음나눔센터 검색) 참여하고 싶은 집단상담을 선택 후 신청 이유 입력 후 신청
선발 인원	집단상담 그룹별 10명 내외(총20명) 1그룹: 아로마테라피 (6/17~7/15, 매주 화요일, 10:30~13:00) 2그룹: 대인관계향상 (6/25~7/16, 매주 수요일, 13:00~15:30)
참여 혜택	출석률 80% 이상+만족도 조사 완료 시 시간당 마일리지 10점
운영 주관	강남대학교 마음나눔센터 / 문의: 031-280-7205, msseo95@kangnam.ac.kr

향기로 위로받고, 명상으로 나를 돌보다

1 그룹 스트레스 완화
아로마테라피
"향기로운 마음챙김 명상"
스트레스로 답답한 마음을 편안하게 풀어줄
"향기로운 숨쉬기 명상"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추천!
- 스트레스로 인해 마음이 답답한 사람
- 아로마 향기를 좋아하는 사람
-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줄 활동을 찾는 사람

상담목표
- 아로마와 명상을 통한
스트레스 수준 감소 및 심리적 이완

준비물 | 편안한 복장

문의 | 마음나눔센터(031-899-7205
msseo95@kangnam.ac.kr)

회기	날짜	시간	회기별 주제	모집인원	장소
1 회기	6/17 (화)		호흡명상, 바디스캔 with 밸런스완		마음나눔센터 집단상담실 3 (인문사회관 227호)
2 회기	6/24 (화)	10:30-13:00 (2시간 30분)	견기명상 with 페퍼민트향	10명 내외	
3 회기	7/1 (화)		움직임 명상 with 오렌지향		
4 회기	7/8 (화)		용서와 자애명상 with 시더우드향		
5 회기	7/15 (화)	10:30-12:30 (2시간)	나만의 아로마 터치 만들기		

첫 번째 그룹 '향기로운 숨쉬기 명상'을 주제로 한 아로마테라피 집단상담은 스트레스로 인해 긴장된 몸과 마음을 향기와 명상을 통해 이완하고자 기획되었다.

총 5회 동안 ▶ 호흡명상 ▶ 견기명상 ▶ 움직임명상 ▶ 용서와 자애명상 ▶ 나만의 아로마 터치 만들기 등 다양한 테마명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회기에는 오렌지, 밸런스, 라벤다, 포기브 등 천연 에센셜 오일이 함께 사용되어 참여자들에게 감각적 치유와 몰입감을 제공했다.

강민주 상담사의 안내로, 참여자들은 단순한 '쉼'을 넘어 향기로 위로받고, 내면의 감정에 주의 깊게 머무르며 자신의 감정, 생각, 행동 그리고 신체적 특성을 포함한 모든 측면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명상을 통해 나를 돌보는 자기 수용의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참여자 대부분은 “향기와 명상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매 회기 이후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긍정적 피드백을 남겼다.



▮ 관계 속 나를 돌아보며, 건강한 거리두기를 배우다

두 번째 그룹은 ‘애착유형과 성격검사(TCI) 를 바탕으로 한 자기이해 및 관계 패턴 탐색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TCI는 기질 및 성격 검사(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의 약자로, 개인의 기질과 성격을 구분하여 측정하는 심리 검사이다. TCI는 타고난 기질과 후천적으로 발달하는 성격을 분리하여 분석함으로써, 개인의 사고방식, 감정, 행동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여자들은 '애착관계에서 반복되는 감정 반응', '관계 내 갈등 조절 방법', '감정 표현 방식' 등을 중심으로,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총 4회로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서명석 상담사의 안내로 진행되었으며, 참여자들은 애착유형과 성격 검사 해석을 통해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 패턴을 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타인과의 건강한 거리 조절 방법을 학습할 수 있었다.

대인관계 향상 집단상담 참가자들은 “이전 연애나 관계에서 왜 힘들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소감을 전하며 관계에 대한 불안 감소와 자기표현 향상에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2 그룹 : 대인관계 향상
"애착과 연애, 근데 이제.. TCI를 걸들인!"

이런 사람에게 추천!
-왜 연애가 힘들고 복잡하게 느껴질까? 고민하는 사람
-도망치고 쫓고 반복되는 연애/관계 패턴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
-애착유형, TCI를 통해 관계 속 나를 더 깊이 알고싶은 사람

상담목표
-애착유형과 성격검사를 기반으로 관계 속 자기이해 증진
-감정반응 및 거리조절 패턴을 자각하고 표현하는 연습
-관계에서의 나를 정리하고 건강한 관계 맺기 역량 향상

문의
마음나눔센터(031-899-7205)
msseo95@kangnam.ac.kr

나야, TCI

회기	날짜	시간	회기별 주제	모집인원	장소
1회기	6/25 (수)		오리엔테이션 연애와 관계에서의 '나'		
2회기	7/2 (수)	13:00-15:30 (2시간 30분)	애착유형 + TCI로 알아보는 '나'	10명	마음나눔센터 집단상담실 3 (인문사회관 227호)
3회기	7/9 (수)		반복되는 갈등과 연애매턴 속의 '나'		
4회기	7/16 (수)		건강한 사랑을 위한 '나만의 연애 매뉴얼'		



대부분의 참여자는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4.92점 (5점 척도)이라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자기 이해 및 스트레스 대처 능력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다. 특히 “단순한 강의가 아닌 체험 중심 활동이 좋았다.”, “소수 인원이라 마음 편히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반응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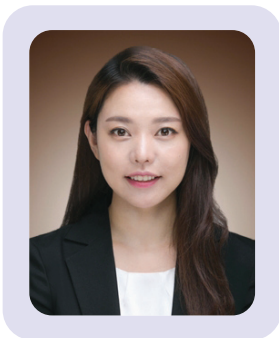
이번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단순한 정서지원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자아성찰과 관계 회복력을 높이는 장기적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를 넘어, 참여 학생들이 스스로를 이해하고 타인과 건강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소중한 기회였다.

강남대학교 마음나눔센터는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맞춤형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하며 전문 상담 서비스와 연계 학생의 정서적 회복탄력성과 관계 역량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AI 기반 맞춤형 전공 · 진로 탐색 서비스 Young熊+(영웅플러스) 도입



김난옥

단국대학교
교육혁신원 교육성과평가센터
연구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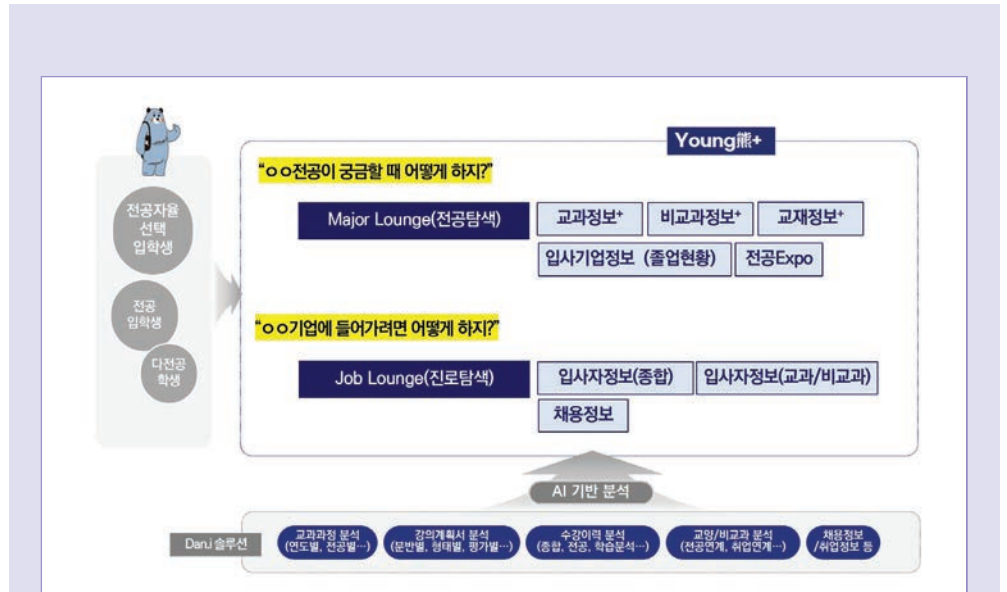
단국대학교에서는 전공 및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AI 기반 학생 맞춤형 서비스 ‘Young熊+’를 구축하고, 올해 3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Young熊+’는 전공자율선택제로 입학한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 경험과 진로 탐색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전공을 심도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AI 기반 분석 및 맞춤형 추천, 빅데이터에 기반한 전공별 다각도 분석 결과 등을 통해 학생들의 전공과 진로 탐색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Young熊+’는 크게 Major Lounge와 Job Lounge 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Major Lounge는 학생들이 관심 있는 전공을 다양한 측면에서 탐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나의 전공 및 관심 전공에 대하여 한 눈에 보는 정규 교육과정 정보 및 나의 이수 현황, 교과목 및 비교과 수강 현황 분석 정보, 졸업 현황, 교재·참고문헌 통합 정보, 교재·참고문헌과의 연관교과 분석 정보, 교과목별 이수자의 다음 수강 경로 분석 정보인 수강PATH, 교과목별 유사도가 높은 연관교과 분석 정보, 부족한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비교과 프로그램 추천, 학습자 특성 및 관심 정보를 기반으로 한 나만의 교과활동 및 비교과활동 키워드 추천 등을 제공하여 전공 탐색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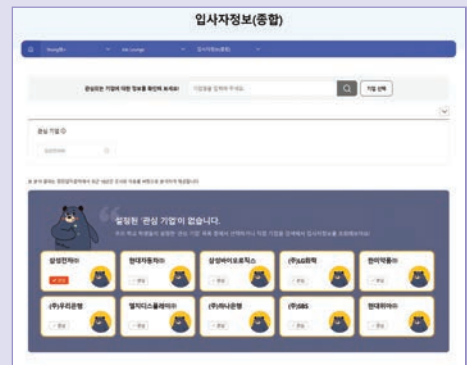
Job Lounge는 진로 탐색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관심 기업에 입사한 선배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관심 기업에 입사한 졸업생의 학습경험 분석, 관심 기업의 최신 교내·외 채용 정보 한곳에 모아보기, 동문 선배들의 실무 경험 및 취업전략 심층 취재 기사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Young熊+’는 단국대학교의 AI 기반 교육지원 서비스인 ‘단아이(Dan.i)’를 기반으로 구축되었다. ‘단아이’는 2021년 국내 최초로 단국대학교가 선보인 AI 기반 맞춤형 교육·연구지원 서비스이다. AI가 사용자의 학습경험을 분석해 핵심 토픽을 추출하고, 추출된 토픽 간 연관도를 분석하여 학생별 맞춤형 교과·비교과 토픽과 추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예산과 구축 기간을 절감하면서도 안정적인 AI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각 학과(전공)의 조직 변경 이력을 정비하고 졸업 현황 등의 데이터를 전면 전처리하여 보다 정확한 분석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 더불어 ‘Young熊+’는 단국대학교의 학생역량통합관리 시스템인 ‘Young熊 Story’에 연동하여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며, ‘Young熊 Story’에서 기존에 제공하던 비교과 프로그램, 상담 및 취창업 컨설팅 등과도 연계하여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학생들은 'Young熊+'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자신의 관심 분야를 탐색하고, 관심 전공 및 관심 기업과 자신의 학습경험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설계해나가는데 실질적이고 유의미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1] AI 기반 맞춤형 전공·진로 탐색 서비스 Young熊+의 구조



[그림2] Young熊+의 Major Lounge 교과정보(왼쪽)와 Job Lounge 입사자정보(오른쪽) 화면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AI와 함께 성장하는 나의 학습법!

「AI를 활용한 나의 학습법 노하우 공모전」성료



전재민

대구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전임연구원

대구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AI를 활용한 나의 학습법 노하우 공모전」을 운영하였습니다.

기존의 '나의 학습법 노하우 공모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생성형 AI 시대에 걸맞은 차세대 학습 전략 발굴을 목표로 새롭게 기획된 이번 공모전은 AI를 학습에 창의적으로 접목한 사례들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은 ChatGPT, Perplexity, Claude, Vrew, Gamma, Canva, ClovaNote, 구글 Gemini 등 다양한 AI 도구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학습 콘텐츠를 직접 기획·제작하였으며, PPT, 한글 문서, UCC 동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총 40명의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추진일정

일정	사업내용	비고
2025. 03. 17. (월) ~ 03. 28. (금)	학습법 노하우 공모전 안내 및 홍보	
2025. 04. 04. (금) ~ 06. 06. (금)	공모전 응모기간	
2025. 06. 16. (월) ~ 06. 27. (금)	공모전 심사	심사위원 3명 위촉
2025. 07. 07. (월)	당선작 발표	
2025년 7월 중	자료집 발간 및 교내 홈페이지 게시	

수상 현황

- 최우수상 1명
- 우수상 3명
- 장려상 5명
- 열정상 7명(선착순 참여)

최우수상 수상작 소개

최우수상 수상자는 Daglo, ChatGPT, Perplexity 등을 학습 전·중·후 단계에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다음과 같은 3단계 학습법을 제안하였습니다.

- 정보 수집: 강의 녹음을 Daglo로 텍스트화하고 핵심 내용을 요약
- 심층 분석: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ChatGPT 또는 Claude를 통해 정리
- 지식 통합: Perplexity로 보완 자료를 수집하고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

이처럼 다각적 접근법도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동일한 질문을 여러 AI에게 던지면 각기 다른 관점과 방식의 답변을 얻을 수 있는데, 실제로 수상자는 ChatGPT와 Claude의 설명 스타일이 서로 달라 이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더욱 정제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질문 설계 역시 핵심 전략으로, 막연한 질문보다는 수준과 목적에 맞춘 상세한 요청이 훨씬 더 높은 품질의 답변을 이끌어낸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신입생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실생활 예시를 들어 설명해줘”와 같이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는 방식이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수상자는 실제로 게임 기획서를 만드는 프로젝트에서 조장 역할을 맡으며 시와의 체계적인 협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1단계 아이디어 발전에서는 ‘모바일 RPG’라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존 게임과의 차별성, 수익 모델, 유지 전략, 개발 현실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개선 요청을 했습니다.

2단계 일정 관리에서는 팀원 5명, 총 4주, 주당 투입 시간, 중간·최종 발표 일정을 명확히 제시한 후, 단계별 마일스톤과 점검 사항이 포함된 계획 수립을 시에 요청했습니다.


3단계 캐릭터 디자인에서는 기존에는 참고 자료에 의존했지만, 시를 통해 다양한 요소를 조합한 독창적인 캐릭터를 완성하면서 결과물의 질이 확연히 향상되었음을 체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은 주당 학습 시간을 10~15시간 단축시키는 동시에, 남은 시간을 개발 공부나 포트폴리오 제작 등 진로 준비에 활용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수상자는 AI 활용 시에도 몇 가지 유의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반드시 다른 출처와 교차 검토해야 하며, AI는 아이디어 도우미일 뿐 학습의 본질은 스스로 사고하고 작성하는 데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사용자에게 있다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학생들이 시 기반 학습전략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공유함으로써, 학습 효율성과 자기주도 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AI 리더러시를 갖춘 미래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센터는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며, 시 기반 교수학습 혁신을 선도하는 중심축의 역할을 이어가겠습니다.



현재는 너무 다양한 시가 생겨 어떤걸쓸지도 고민 되죠

02 | 나의 학습 노하우 (4)

- AI 활용 학습 방법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Chat GPT, 프로그래밍 관련)



문제 맞추는 함수

```
python
import random # random 모듈 불러오기: 난수 생성에 사용

def questions(): # 수학 문제(문자열)를 생성하는 함수 정의
    a = random.randint(11, 38) # 1~38 사이의 정수 하나 생성 + 첫 번째 피연산자
    b = random.randint(11, 38) # 1~38 사이의 정수 하나 생성 + 두 번째 피연산자
    oper = random.randint(1, 3) # 1~3 사이의 정수 하나 생성 + 연산자 결정

    q = str(a) # 문자 문자열을 만들기 위해 str()을 문자열로 변환

    if oper == 1: # 연산자 연산자 1(덧셈)
        q = q + "+" # 덧셈 연산자 추가
    elif oper == 2: # 연산자 연산자 2(뺄셈)
        q = q + "-" # 뺄셈 연산자 추가
    else: # 연산자 연산자 3(곱셈)
        q = q + "*" # 곱셈 연산자 추가

    q = q + str(b) # 두 번째 숫자를 문자열로 변환하여 이어 붙임 (예: "12*3")
    return q # 완성된 수학 문자열 반환
```

이 화면에 나오는 모든 코드를 주석을 달아서 해석해줘

질문할 때, gpt가 알려진 정보에 대한 질문을 또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ex. oper은 무슨 뜻이야?
 return 은 무슨 의미지?
 저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값은?

Part.1 내가 사용하는 AI 프로그램 종류와 사용 용도

 Chat GPT	 워튼(Wrtn)	 Perplexity	Next Page GO G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분야 지식 탐색을 할 경우 - 내가 만든 과제 아이디어 정리 - 전공 및 교양과목 학습 중 어려운 개념들을 정리 - 학교 수업내용 요약 및 정리 - 영어회화 및 작문연습 - 발표 보고서 구조를 형성할 때 - 갑작스런 발표와 내가 맡은 분야를 빠르게 배경지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 학과목 PPT발표 준비를 위한 자료조사를 할 경우 카드 뉴스와 SNS의 요약 글들을 콘텐츠 화할 때 사용. - 많은 조사자료들 중 같은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 하려할 경우 사용(Bullet Point로 변환할 경우에도 사용) - 키워드 중심 자동 문장 완성(몇 개의 관련 단어만으로 글쓰기 및 자료조사에 맞는 문장들을 자동으로 생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한 자료들의 출처를 알아볼 경우 - 최신시간 정보 자료 업데이트 기능 최적화로 인해 최신 정보를 보다 빠르게 알아볼 경우에 사용 - 전문적인 분야의 정보 검색과 출처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 	

실제 학습 사례

단계	활용도구	실제 프롬프트	결과
개념이해	ChatGPT	"의사소통장애와 언어장애의 차이를 설명해줘. 예시도 포함해서"	핵심 개념을 간단한 언어로 빠르게 이해
사례탐색	ChatGPT	"언어발달지체 아동의 진단 사례를 만들어줘. 배경과 평가 내용 포함해서"	실제 임상 사례처럼 생각하는 연습 가능
정리	Notion	"의사소통장애진단 과목을 기준으로 학기 전체 학습 계획표를 주차별로 정리해줘."	체계적인 복습 노트로 시험 대비 완료
복습	Daglo	"이 PPT 파일의 내용을 핵심 주제 5개로 요약해줘."	핵심 내용을 반복 학습으로 장기 기억 가능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DU 인성 함양 프로그램] “같이”의 힘으로, “함께” 머무는 대학

‘관계 형성부터 전공선택과 공동체 체험까지’ 참여 기반 학생문화 혁신 모델



김병래

대구대학교
학생문화팀
계장

배경

1) 학생 성향의 변화

현 지역 대학 학생들은 개인주의 성향 강화와 소속감 저하로 인해 도전 회피 심리, 소극적 참여 태도를 보이며 대학 공동체로부터 심리적,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경향이 뚜렷해짐

2) 학생문화 전략의 변화

- 기존 일방적 행사나 전통적 관계 기반 프로그램을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정서적 관계 형성부터 진로 설계 및 전공선택, 경험 중심 공동체 문화 기반의 관리 체계에 집중
- 따라서, 대학혁신사업으로 ‘학생 중심의 연결된 공동체’, ‘함께 머무르는 캠퍼스’라는 문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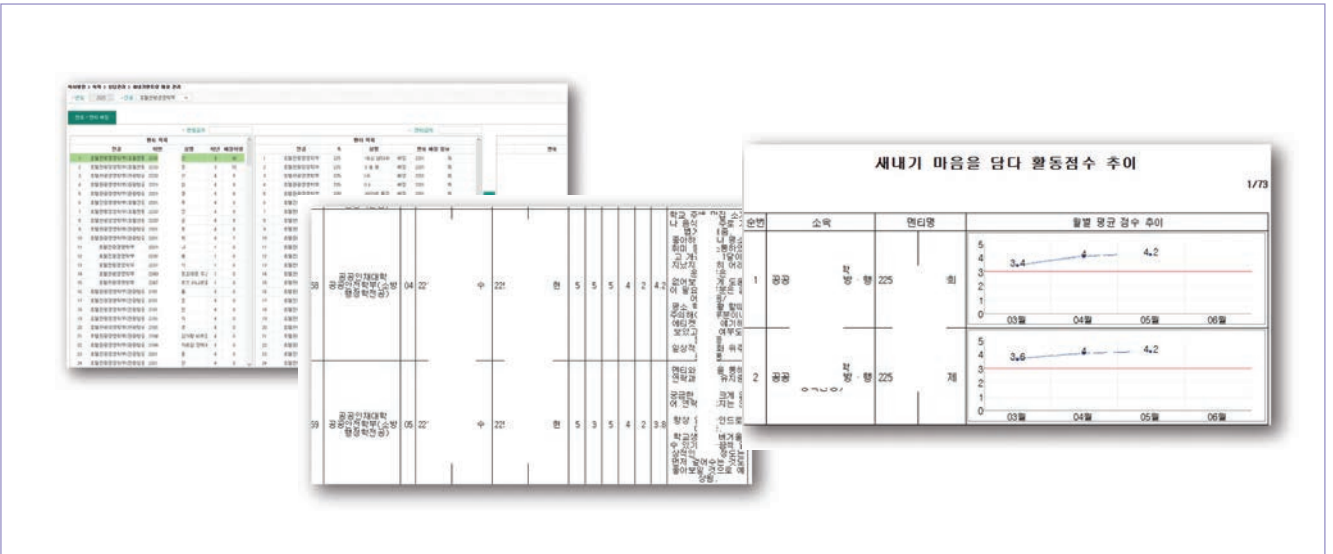
성과사례 추진사업 [DU 인성 함양 프로그램]

1) 새내기 마음을 담다(멘토-멘티)

- 11개 학과(전공) 멘토 61명 선별하여 시범 사업으로 운영 중(2025.3.~)
- 멘토당 10명 내 신입생 매칭하여 사전교육 및 관계 형성 프로그램 지원
- 5개 문항 5점 척도의 자체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멘토가 직접 입력 및 관리하고, 학생문화팀에서 모니터링을 실시, 위험군을 별도로 관리하는 등 데이터 기반 학생 관리 체계 모델 개발



멘토 사전교육



멘토 멘티 모니터링 관리 시스템

2) 자유전공학부 새내기 전공매칭데이(전공선택권 강화)

- 자유전공학부 학생 238명 전공 선호도 검사 실시 등 적성·흥미 전공매칭데이 실시(2025.3.26.~27.)
- 15개 전공(교수) 참여 전공설명회 및 전공매칭 상담 참여
- 다전공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 설명회 및 전공선택권 강화 실시



전공매칭데이 행사 설명회 및 상담



행사 단체 사진

3) 2학기 주요사업(예정)

구분	DU 한마음 체전 (지속 가능한 공동체 문화)
일시 및 장소	2025. 9. 19.(금) 예정, 대구대학교 축구장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형 학생 중심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한마음체전 행사 준비 - 학생·교수·직원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 문화행사로 기획하여 DU인재형 사회적 가치 공유
예시 현장 사진	
구분	DU 전공 박람회 (다전공 운영 활성화)
일시 및 장소	2025. 11. 18.(화), 대구대학교 본관 1층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전공학부, 지역 예비대학생(고3), 다전공 관심 재학생 등 전공설명회 실시 - 다전공 운영 제도 및 전공선택권 강화를 위한 학사제도 설명회 등 각종 이벤트 예정
예시 현장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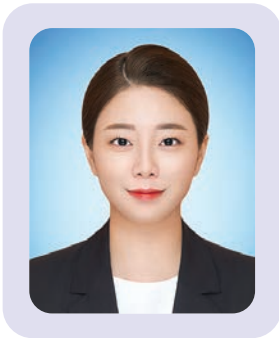
기대효과

- 정서적 소속감과 자기설계 역량을 강화하는 문화 기반 학생지원 모델 확산
- 지방 재학생 정량적 이탈률 감소 및 전공 유입 안정성 확보
- 지역사회를 어우르는 지역 기반 공공성과 지속 가능한 공동체 문화 확산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융합형 인재 양성 미래지향적 학사제도 혁신 사례



김보경

대구의한대학교
교무인사팀
담당

추진 배경

▶ 지역과 지방대학 공동 위기 심화

- 인구감소,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으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사회 침체 및 지역소멸 위험 확대

▶ 특성화 및 학생 맞춤형 유연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지역 학생 수요에 맞는 유연한 학사구조 제도 및 교육방법의 혁신을 통해 비수도권 사립대학의 경쟁력 강화

융합교육과정 운영 방향

▶ 2024학년도 융합전공·마이크로디그리과정 설치 및 운영을 통해 학사제도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강화하고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기반을 마련

〈2024학년도 융합전공 설치·운영〉

연번	전공명칭
1	코스메슈티컬융합전공
2	라이프케어융합전공
3	해양웰니스융합전공

〈2024학년도 마이크로디그리과정 설치·운영〉

연번	과정명칭
1	코스메슈티컬창업과정
2	라이프케어융합과정
3	해양웰니스융합과정

세부 추진 프로그램 및 성과

1) 융합전공 설명회

- 대상: 융합전공 관심 재학생 및 이수 예정자

- 내용: 융합전공 개요, 이수 방법, 진로 방향 등 안내
- 정량성과: 참여인원 74명(목표 90명), 만족도 4.6점(5점 만점)
- 정성성과: 문의 전화 및 컨설팅 요청 증가, 관련 교과목 수강생 및 다전공 신청자 증가

- 융합전공 설명회 현장에서는 융합교육과정의 개념과 운영 내용, 이수방법, 혜택 등을 시각화한 홍보 브로슈어를 함께 배부하여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활용 콘텐츠 제작
- 해당 브로슈어는 학생들의 관심 유도뿐만 아니라 학사 상담 시에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며, 학생들의 융합전공 참여 확대에 기여



2) 융합교육과정 전략수립 컨설팅

- 대상: 융합교육과정 이수자 및 희망자
- 내용: 개인 맞춤형 학습전략 설계, 과목 선택 및 진로설정 지원
- 정량성과: 참여자 42명(목표 50명), 만족도 4.85점
- 정성성과: 진로 설정 및 융합적 사고력 향상에 기여



3) 융합전공 온라인학습 멘토단

- 대상: 융합전공 온라인학습 멘토단에 선정된 재학생
- 내용: 학습 로드맵 설계, 다전공 과목 학습 전략 제공
- 정량성과: 참여자 44명, 멘토링 85건(목표 대비 170%), 만족도 4.7점
- 정성성과: 멘토-멘티 간 유대감 및 정보 공유, 학습공동체 형성

융합전공 온라인 학습 멘토단
 2024 HANARO ONE HAANY

모집요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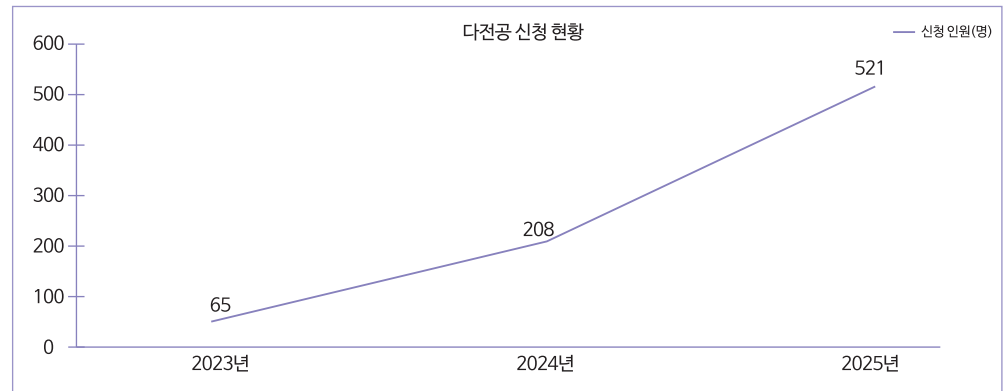
- 신청요건**
 - 1. 멘토 (3~4명)
 - 2. 지원 학기 분할 3주할 이상인 자
 - 3. 멘토링 경험자 우선
 - 4. 융합전공 주임의 추천을 받은 자
 - 5. 멘토링 후 3주할 이상 출석시 지원 가능
 - 6. 멘토 (1~2학년)는 멘토링을 (당수, 복수전공)에 융합전공, 창업학과, 재학생
- 멘토링 활동**
 - 활동기간** 2024. 10.1(화) ~ 12.13(화)
 - 활동횟수** 활동기간 내 7회 이상
 - 활동내용**
 - 융합전공 다전공 이수 방법 및 노하우 공유
 - 융합전공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멘토-멘티 간 유대감 증진
- 모집기간** 2024. 9. 2(화) ~ 9. 13(금)
- 신청방법**
 - 신청서(첨단교육혁신지원센터/대학대우팀) 접수
 - 1차 면접(첨단교육혁신지원센터/대학대우팀) 100명
 - 2차 면접 신청(moraaa@du.ac.kr)
 - ※ 학교 내 학업 주 그룹웨어 앱에 지원 가능
- 장학금 혜택**
 - 우수 멘토단 선발 후 월한 장학금 지원
 - 최우수 멘토, 우수 멘토 선발 후 장학금 지급
 - ※ 선발 기준: 학과, 학성도, 성취성, 직할성

문의: 053-619-7758



다전공 신청 대비 증가 현황표

최근 3년간 다전공 신청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전공 선택 다양성과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종합 평가 및 성공 요인

- ▶ 학생 수요 중심의 교육과정 설계
 - 학생들의 관심과 진로를 반영한 융합교육과정 개발
- ▶ 학사구조의 유연성 확보
 - 융합전공, 연계전공, 마이크로디그리과정 등 다양한 학위 취득 경로 제공
- ▶ 지역사회 및 산업체 연계 강화
 -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실무 중심 교육과정 운영 및 지역 사회와 연계한 교육 혁신을 통해 대학의 지역 기여도 및 브랜드 가치 제고

향후 방안 및 개선

-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 맞춤형 융합교육 환경 조성 기반 마련
- ▶ 전공 선택권 확대 및 진로 설계 지원 체계 강화
- ▶ 다양한 전공 간 융합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학생 선택권 확대 및 진로 다양화 지원
- ▶ 마이크로디그리과정 및 융합전공 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참여율 확대
- ▶ 융합교육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안내 강화로 학생들의 선택 만족도 제고
- ▶ 향후 지속적인 피드백을 위해 이수 현황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총 32명의 학생이 본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이는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참여 학생들은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으며, 특히 학습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습니다.

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 본 프로그램은 5점 만점에 평균 4.48점이라는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 운영 방식, 강의의 질, 실천 가능성 등 여러 측면에서 학생들의 기대를 충족시켰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사전역량검사에서는 평균 3.60점이었으나 프로그램 후 진행된 사후역량검사에서는 평균 4.22점의 수치를 보이며 향상된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의 학습 습관을 점검하고, 자신에게 맞는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으며, 이는 장기적인 학업 성과 향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프로그램의 운영 전략 또한 효과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프로그램 일정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개별 참여를 독려했으며, 전체 4회 중 3회 이상 참여를 이수 조건으로 설정함으로써 자발성과 책임감을 유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운영 방침은 실제로 높은 참여율로 이어졌으며, 프로그램의 몰입도와 지속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실행계획 및 확산 방안

▶ 도덕 소통의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학업능력과 학업 흥미도를 증진하여 학업 저성취 학생들의 학습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대학 「시그니처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학습역량 Level up 프로그램의 가치를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학생들의 참여 유도하고 개강 시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 모집, 학습전략 검사 실시, 주제별 학습전략 특강, 우수 소감문 시상, 자기주도 학습역량 사전·사후검사 실시 등의 다양한 교수법을 통해 학생 만족도 향상과 중도탈락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학생들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학습역량을 증진하도록 프로그램의 계획, 실행, 평가, 개선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학업 저성취 학생, 학사경고 학생 대상 특화 사업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나아가 학생 맞춤형으로 구성할 기초학문 콘텐츠와 함께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기초부터 차근차근 학습 집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2025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전공설명회 개최

- 관심 전공을 한 자리에서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
김태호PD의 스페셜 특강을 통해 진로 탐색의 다양한 사례 공유 -



윤정미

서울여자대학교
신입역량강화센터
직원

추진 배경 및 목적

‘2025 전공설명회’는 전공자율선택제로 입학한 신입생들에게는 관심 전공을 한 자리에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전공 결정에 도움을 주고,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고민하는 재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공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융합전공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마련되었다.



서울여자대학교 2025 전공설명회 전경

운영 내용

2025 전공설명회를 방문한 학생들에게 전공 및 진로에 대한 정보 제공 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공안내 부스> 외 <행정지원부서 부스>, <외부인사 초청 스페셜 특강>, <이벤트 부스>를 운영했으며, 특히 <전공안내 부스>는 전공자율선택제로 입학한 신입생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상담과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자유전공 진로지도교수를 포함한 전공 교수가 직접 상담자로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추진성과

〈전공안내 부스〉는 우리 대학의 연계전공을 포함한 46개 학과(전공)에서 100여 명의 교수진이 참여해 전 공별 진로 전망과 교과 이수 체계, 학습 방법 및 졸업 후 진출 분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했으며, 1,032명의 재학생이 상담 부스를 찾아 자신의 전공과 진로 탐색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서울여자대학교 2025 전공설명회에서 학생들이 각 전공의 교수들에게 상담받고 있는 모습

▶ 운영부스별 학생참여결과

구분	상세내용	학생참여인원
전공안내 부스	전공 안내 및 상담 (46개 전공)	1,032명
행정지원부서 부스	신입생역량강화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단, SI교육센터, 학사지원팀, 대학원 교학팀	362명
외부인사 초청 스페셜 특강	김태호 PD 특강 (나를 찾아 떠나는 무한도전)	174명
이벤트 부스	컬러 이미지 메이킹	103명
합 계		1,671명

운영된 〈전공안내 부스〉 중 가장 많은 재학생이 찾은 부스는 언론영상학부, 디지털미디어학과, 경영학과였으며, 1학년 학생들은 언론영상학부, 경영학과, 지능정보보호학부의 부스를 가장 많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설명회에 참여한 학생 중 전공부스를 2개 이상 방문하여 정보를 탐색한 학생이 전체 참여자의 62% 이상으로 나타나 전공설명회가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여러 전공을 집중적으로 탐색할 기회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자신에게 맞는 퍼스널 컬러를 알아보는 '컬러 이미지 메이킹' <이벤트 부스>를 운영하여 100여 명의 재학생이 참여했다.

또한 같은 날 자신의 진로를 다양하고 유연한 관점에서 고민해볼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외부인사 초청 스페셜 특강>도 진행했다. 이날 스페셜 특강은 '무한도전', '놀면 뭐하니', '지구마블 세계여행' 등으로 잘 알려진 김태호 PD가 '나를 찾아 떠나는 무한도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김태호 PD는 MBC 퇴사 이후 자신이 설립한 제작사 'TEO(테오)'를 설립하게 된 과정과 플랫폼 산업의 변화 양상을 공유하며, 변화하는 시대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도전을 멈추지 않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페셜 특강에는 174명의 재학생이 참여해 진로와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는 시간을 가졌다.



외부인사 초청 스페셜 특강(김태호PD '나를 찾아 떠나는 무한도전')

이와 함께 학생들에게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학생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안내하여 참여를 유도하고자 <행정지원부서 부스>도 운영했다. <행정지원부서 부스>에는 신입생역량강화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단, SI교육센터, 학사지원팀, 대학원 교학팀이 참여했다. 신입생역량강화센터는 전공자율선택제 신입생 대상 지원 프로그램을,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단은 진로 및 취업 설계를 돕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SI교육센터는 SI 인증제 및 교육과정을, 학사지원팀은 학사지도 및 상담을, 대학원 교학팀은 대학원 진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했다. 이날 행정지원부서 부스에는 362명의 학생들이 방문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이날 <전공안내 부스>에 참여해 진로 상담을 함께한 독일문화콘텐츠전공 서송석 교수는 “전공설명회를 통해 독일문화콘텐츠전공에 관심이 있는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을 직접 만나 전공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전공설명회를 계기로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의 전공 탐색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계속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자유전공학부 학생들과 직접 만나 전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합니다.”라고 전했다.



서울여자대학교 2025 전공설명회 행정지원부서 부스

▣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2025 전공설명회’는 서울여자대학교의 모든 전공을 한자리에서 직접 탐색할 수 있는 자리로, 전공 선택을 앞둔 신입생과 복수전공을 고려하는 재학생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향후 신입생역량강화센터는 전공자율선택제를 통해 입학한 신입생을 포함하여 전체 신입생이 자신의 전공과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탐색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인천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맞춤형 심리지원 프로그램 : 마음건강 봉사캠프



심교린

인천가톨릭대학교
학생상담센터
부센터장

추진배경 및 목적

인천가톨릭대학교는 “그리스도교 생명 문화 창출”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2018년부터 간호대학의 특성화 교과목으로 『호스피스 완화 간호』을 운영하고, 2022년부터는 정규 임상실습 교과목 『호스피스 완화 간호 실습』을 운영하면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전인 간호사로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2022년부터 임상실습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작은 음악회’를 기획하여 간호의 소극적 의미인 의료 보조와 실습을 넘어서서 환자 및 보호자와 인간적으로 만나는 장이자 호스피스와 전인 간호의 진정한 의미를 체험하는 기회가 형성되었음.

한편, 죽음을 마주하는 호스피스 간호 분야는 대학생의 발달적 특성과 심리적 성숙도에 비해 심리적으로 큰 부담감을 느끼게 되므로 내적 성찰과 심리적 돌봄과 자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심리적 지원이 필요함.

프로그램 개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본교 간호학과 교수로 『호스피스 완화 간호 실습』 강의 지도교수의 조언과 공동 논의과정을 통해 1박 2일의 캠프 형식으로 마음건강 봉사캠프 프로그램을 구체화하였음. 또한 호스피스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안내하여 세르파를 통해 신청받아 운영하였음. 주요 프로그램의 내용과 활동사진은 다음과 같다.

강의①

전인적 간호와 호스피스 봉사

- 호스피스 임상실습을 통해 느꼈던 내용과 전인간호의 중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하면서 봉사활동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와의 인격적 만남의 경험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과 태도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돕는 강의



호스피스 임상실습 강의 사진

프로그램 ①

호스피스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마음건강 봉사활동



- 질병의 고통 등으로 지친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작은 음악회 공연
- 공연 중 환자와 보호자에게 장미꽃을 선물하며 삶의 소중함과 아름다움, 축복의 의미를 담아 인간적 만남의 시간을 준비함.

동백 성루카 병원 봉사활동

프로그램 ②

죽음의 심리학과 간호인의 삶 및 마음건 강 봉사 경험 나눔



- 호스피스 환자 및 가족들의 심리적 특성 및 그들을 돕기 위한 심리적 개입법 등을 안내하고 돌봄 종사자의 마음 돌봄 및 자기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
- 봉사 경험의 나눔과 간호인의 정체성 등에 대한 숙고, 선후배 간의 나눔

마음건강 봉사 경험 나눔 현장사진

프로그램③

돌봄 피로와 마음 챙김을 통한 관리

- 특히 호스피스와 같이 심리적 부담감이 큰 분야의 돌봄 종사자들이 자기 자신을 돌보고 관리할 수 있는 심리적 대처의 중요성과 마음 챙김 등 대처법 안내



집단 심층 심리 면담 및 강의 사진

추진성과

총 30명(재학생 23명, 졸업생, 5명, 전담 교수 2명)이 참여한 본교의 교육이념에 부합하는 간호대학의 호스피스 맞춤형 1박 2일 마음건강 봉사캠프는 참여자 만족도 4.96점(5점 척도)로 매우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마음건강 봉사캠프”는 내가 간호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합창을 했을 때, 환자분들의 따뜻한 표정과 고맙다는 말을 들었을 때 더 확고하고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선배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 선배들의 학업 및 진로에 대한 조언도 들을 수 있어서 학교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된 시간이라 뜻깊었다.”

“실습 이후 마음건강 봉사캠프를 참여하게 되어 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내가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물어주시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고 작은 것이라도 나눔으로써 이렇게 큰 행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좋았다.”

- 마음건강 봉사캠프 참여자 후기 中

2024년에 운영된 마음건강 봉사캠프 프로그램은 EBS 다큐(내 마지막 집은 어디인가: 제24회 한국가톨릭 마스크 대상 수상)에 소개된 바가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 직후인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매년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다. 또한 2024년부터는 졸업생까지 참여를 확대하여 선후배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마음건강 봉사캠프는 종합대학에서는 운영하기 힘든 맞춤형 봉사활동과 심리적 개입을 융합 적용하여 운영하는 대학생 마음건강지원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은 우수사례로 평가되었다.

인천가톨릭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서는 학생 수요자 중심 맞춤형 프로그램을 위해 연구 및 개발을 하고 있으며 추후 조형예술대학교 학생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심리건강 프로그램 또한 개발 중에 있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JUNI:ON, 학생과 혁신을 잇다

전주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서포터즈 운영 사례



문종현

전주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
담당

추진 배경 및 목적

전주대학교는 3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을 맞아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주도형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신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와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학생 성공을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모색한 결과, 대학혁신지원사업 서포터즈 운영을 본격화하게 되었다.

‘JUNI:ON’ 서포터즈는 J University, Innovation, 그리고 On(커다)의 의미를 결합한 이름으로, 전주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학생이 직접 홍보하고 개선해 나가는 참여 중심 프로그램이다. 단순한 콘텐츠 제작을 넘어 사업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지속적인 소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북 도내 및 수도권 사례들을 참고해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2025년 4월 10일 공식 출범 이후 학생 주도형 홍보 및 참여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전주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수요 조사



2025 전주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 JUNI:ON 발대식

▣ 운영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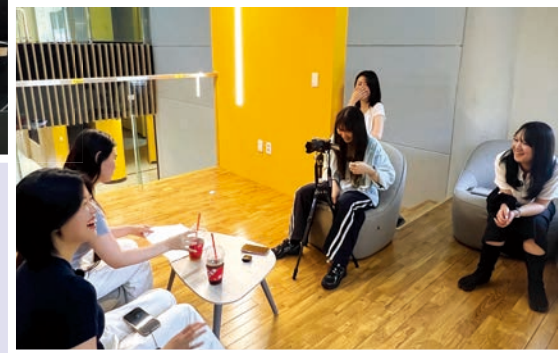
전주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서포터즈 JUNI:ON은 약 10개월간 활동하며, 다양한 전공의 재학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포터즈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을 홍보하고, 사업 성과를 콘텐츠로 제작해 공유하는 역할을 맡는다.

출범 후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홍보 기획, 영상 편집, 콘텐츠 제작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역량 강화를 진행하였으며, 매월 2회 이상 정기회의를 통해 활동 방향과 과제를 공유한다. 개인별로는 매달 1건 이상의 콘텐츠를 제작해 공식 SNS와 블로그에 게시하고, 팀별로는 주제별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전주대학교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다.

또한 기장과 팀장을 선출해 원활한 운영과 소통을 도모하며, 활동 종료 시에는 정기회의의 참석,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 참여 내용 등을 포함한 개인 활동보고서를 제출해 성과를 정리하고 있다.



◀ 서포터즈
영상 편집 교육



▲ 서포터즈 팀 활동



◀ 서포터즈 정기회의

서포터즈 활동은 매월 활동계획서와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종합 평가하며, 단순 참여 여부뿐 아니라 콘텐츠 완성도와 소통 기여도 등을 고려해 활동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 중심 운영은 학생들의 책임감과 동기부여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운영 구조는 서포터즈 출범 전 학생 수요조사를 통해 수립된 의견을 반영해 설계되었으며, 전주 대학교는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유연한 운영과 소통을 지속해 JUNI:ON이 대학혁신지원사업 서포터즈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추진 성과

2025년 현재, 제1기 대학혁신지원사업 서포터즈 JUNI:ON은 총 10명의 재학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내년 2월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4월부터 현재까지 제작된 포스팅 콘텐츠는 총 30건으로, 이 중 15건은 사업단 SNS에, 15건은 전주대학교 블로그에 게시되었다.

또한, 'RC멘토링', '자율전공학부생의 전공 찾기' 등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총 4건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였으며, 기초교육 3회, 홍보교육 1회, 편집교육 2회, 촬영교육 1회 등 실무 중심의 교육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추가로 콘텐츠 교육 1회가 더 계획되어 있다.

서포터즈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소재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기획하고, 다양한 진로 연계형 비교과 프로그램과 역량 강화 교육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단순 제작을 넘어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RC 멘토링 영상 업로드



자율전공학부생 전공찾기 영상 업로드



갓생살기 영상 업로드

향후 계획

서포터즈의 첫 출발인 만큼, 향후에는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성과를 확산하고자 한다. 활동 종료 시점에는 성과 공유회를 개최해 1기 활동을 돌아보고, 이를 토대로 2기 서포터즈 운영을 준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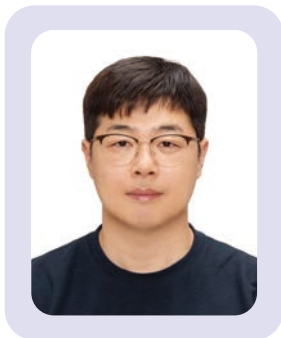
기초 교육, 홍보 기획, 편집 실습 등 서포터즈 트레이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던 만큼, 수요 조사를 반영해 지속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총괄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사례영상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JUNI:ON의 활동 성과와 콘텐츠 제작 역량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방학 기간에는 일정 조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정기회의 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 구성원의 부담을 줄이며 소통 중심의 운영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구성원 참여 기반 아이디어 발굴 및 실행을 통한 Bottom-up 혁신문화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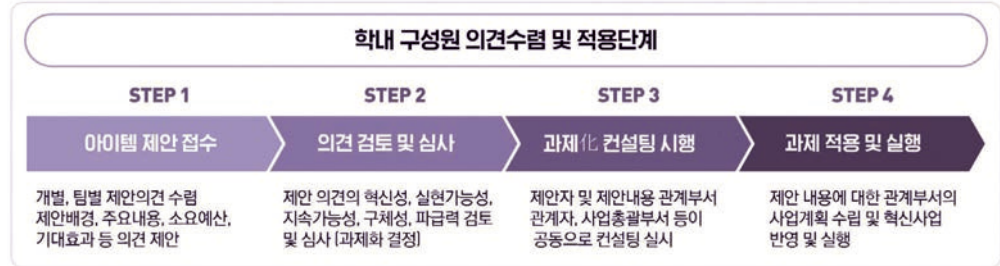


이홍승

포항공과대학교
 혁신사업단 대학혁신사업팀
 책임연구원

추진배경 및 목적

포항공과대학교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학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 체계를 정립하고, 민주적 거버넌스를 실현하고자 다양한 의견수렴과 실행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단순한 의견 청취 수준을 넘어, 구성원의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대학 내 혁신 생태계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기존의 수직적 의사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총괄 부서가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실무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운영내용

포항공과대학교는 2024년 한 해 동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총 19건의 제안을 접수하였다. 참여자는 개인 17명, 팀 2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제안 분야는 인프라, 혁신성장 아이템, 참여 확대 방안, 기타 제안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심사를 통해 총 6건의 우수 제안이 선정되었고, 이 중 5건에 대해서는 과제화 컨설팅이 진행되었다. 컨설팅 결과, 3건은 실제 사업화로 이어졌으며, 나머지 과제들은 타 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혹은 대학 자체예산을 활용한 실행 검토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POSTECH 통합 관리 어플리케이션’ 제안은 향후 대학정보시스템 고도화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며, ‘교내 카페 다회용컵 도입’ 제안은 복지회와 미래도시연구센터의 협의를 거쳐 2025년도 실행 계획에 포함되었다. 반면, 초기 구축 비용이 높은 ‘탄소중립 건물 설계’ 제안은 현재 추가 검토 중에 있으며, 다른 일부 제안도 향후 사업 연계를 고려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구성원 간 협업을 통해 제안된 ESG 관련 아이템도 주목할 만하다. 학생들이 참여한 ESG 캠퍼스

구현 방안 2건은 모두 과제화가 결정되었으며, 이 가운데 ‘융합전공 기반의 ESG 교과 운영’은 포스텍형 Open Curriculum과 연계되어 교육과정으로 반영되고 있다. ‘P-ESG 캠퍼스 문화 조성’ 제안은 릴레이 활동 형식의 캠페인으로 기획되어, 3주기(’25~’27) 대학혁신지원사업 신규 과제로의 연계가 추진 중이다.



‘융합전공 기반의 지속가능캠퍼스 구축’ 아이템 제안 발표



‘학생 참여 기반의 지속가능 캠퍼스 문화 조성을 위한 ESG 활동 확대’ 아이템 제안 발표



관계부서 과제화 컨설팅 실시



세부과제 반영 및 참여자 시상

성과 및 의의

이러한 운영을 통해 포항공과대학교는 구성원의 자발적인 제안이 단순히 수렴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이어지는 실행력 있는 의견수렴 체계를 정착시켰다. 특히 교육, 인프라,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과제들이 도출되었으며, ESG와 디지털 혁신 등 대학의 중장기 전략과 연계 가능한 실천적 성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또한 일부 제안은 다른 대학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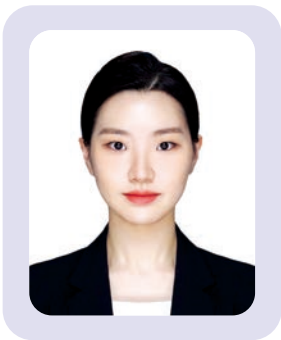
포항공과대학교는 앞으로도 제안 채널을 확대하고, 학생회나 연구실 단위 등 다양한 공동체와의 연계를 통해 보다 많은 구성원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과제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사업 또는 자율예산과의 연계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ESG, 디지털 전환 등 미래지향적 가치 중심의 주제를 바탕으로 거버넌스 체계를 고도화하여, 대학 내 ‘참여 기반 실행 거버넌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포항공과대학교는 구성원의 목소리가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참여형 혁신대학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황혼에 날아오른 미네르바의 부엉이처럼 HUFSpeech, 스피치의 가치를 깨닫다



정예린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지원팀
담당

추진 배경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혁신원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교육혁신 전략에 따라 핵심역량 기반의 창의성장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다. 특히 본교의 핵심역량 중 의사소통 역량과 지식·정보·기술 활용역량 강화를 목표로 학습자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고 있다.

그 중 하나인 'HUFSpeech'는 학습자의 의사소통 역량 향상을 위한 스피치 교육 및 대회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일정 기간 집단 교육과 1:1 컨설팅을 받은 뒤, 스피치대회를 통해 학습 성과를 점검하게 된다. 우리대학은 2021년 겨울방학부터 매년 방학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HUFSpeech를 운영해왔으며, 2025학년도 여름방학에도 제7회차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HUFSpeech 모집공고 포스터

운영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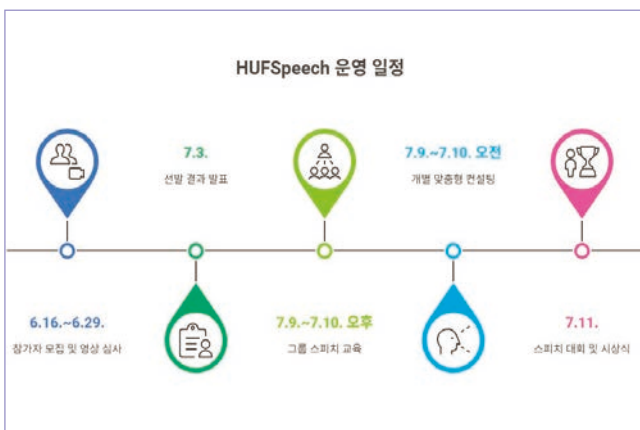
2025학년도 여름방학 HUFSpeech 프로그램은 2025년 7월 9일(수)부터 7월 11일(금)까지 3일간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은 3~5분 분량의 자유 주제 스피치 영상을 사전 제출한 재학생 중 심사를 통해 선발된 20명 내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였다. 1~2일차는 그룹 스피치 교육(총 6시간)과 1:1 맞춤형 컨설팅(인당 15~20분)이 제공되었으며, 이를 통해 발표 역량과 음성 표현에 대한 실질적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3일차에는 교육과 컨설팅을 바탕으로 스피치 대회가 개최되었고 참가자들은 사전에 제시된 세 가지 주제 중 하나를 5분간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만의 표현력과 논리력을 바탕으로 의사소통 역량을 효과적

으로 강화할 수 있었다. 스피치 대회에서는 뛰어난 발표력을 선보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상이 이루어졌으며,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이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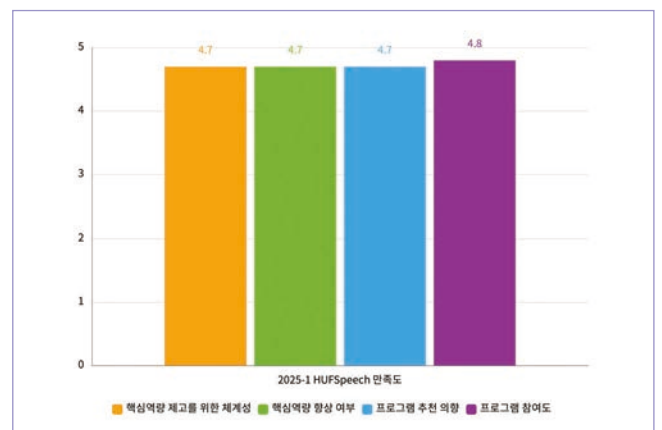


그룹 스피치 교육활동 사진

▣ 운영 일정



▣ 추진 결과 및 성과



표현력, 설득력, 발표 구조화 등 실질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HUFSSpeech 프로그램에는 언어 및 인문계열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았다. 최근 4회차(2023학년도 겨울방학부터 2025학년도 여름방학 까지) 동안 누적하여 운영된 본 프로그램에는 총 80명의 학생이 선발되어 참여하였다. 특히 서양어대학(10명), 영어대학(9명), 아시아언어문화대학(8명) 소속 학생들의 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나, 해당 단과대학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전공 지식과 밀접하게 연계된 주제를 바탕으로 스피치를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량을 강화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학문적 전문성과 실전 표현 능력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매 회차 선별된 인원을 대상으로 집중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총 4회의 대회 동안 16명의 학생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으며 아시아언어문화대학(3명)과 영어대학(3명)에서 가장 많은 수상자가 배출되었고, 그 뒤를 중국학대학(2명), 자연과학대학(2명)이 이었다. 이러한 성과는 학문 기반 전공 역량 강화 및 외국학 교육 전략화라는 본교의 핵심 목표와도 부합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감 향상과 발화 기술의 실질적인 개선을 체감하였다고 의사 전달을 하였다. 특히 만족도 조사 결과, '프로그램 구성의 충실도'에서는 전년 대비 0.15점 증가한 4.8점의 만족도를 보이며 그룹 교육과 전문가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 개별 맞춤형 교육의 구성에 대해서도 4.7점이라는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 학생 활동 수기

평소 스피치를 할 때 자신감이 부족하고 제스처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 큰 고민이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HUFSpeech 프로그램에 신청하게 되었고, 하루 3시간씩 총 이틀간 진행된 강사님의 강연은 제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첫째 날에는 좋은 스피치가 갖추어야 할 구성 요소에 대해 강연해주셨는데 저는 특히 그날의 강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런 스피치가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고 앞으로 제가 발표를 준비할 때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발성과 소리에 중점을 두고 실습이 진행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소리에 집중하게 되었고 스피치에 있어 목소리라는 요소의 중요성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진행된 스피치 대회에서는 이를 동안 배운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니 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는 발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외대 안에서 이렇게 실질적이고 유익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앞으로도 다양한 발표 상황에서 이번 프로그램에서 배운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합니다.

- 스피치대회 대상, 영어통번역학과 김OO-

HUFSpeech 프로그램은 세계 말하기에 대한 인식과 자세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평소 발음과 발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막연히 불편함만 느끼고 있던 저에게 이번 강의는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었습니다. 특히 호흡법과 강세 조절 훈련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또렷한 발화를 연습할 수 있었고, 이론이 아니라 실제 말하기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1:1 컨설팅이었습니다. 제 말하기 습관에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고쳐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짚어주셔서, 막연했던 고민이 명확한 개선 방향으로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말 전체의 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몸으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대회에서는 ‘내 전공을 선택한 이유’를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는데, 스크립트 구성부터 전달 방식까지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말의 흐름과 강약 조절, 시선 처리 등을 의식하면서 발표를 하다 보니, 이전보다 훨씬 주도적인 자세로 무대에 설 수 있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의 발표를 보며 다양한 화법과 표현 방식도 접할 수 있었고, 그 자체로도 큰 배움이 되었습니다.

짧지만 밀도 있는 이틀간의 과정은 말하기에 대한 제 불안감을 줄이고, ‘진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화법’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HUFSpeech는 단순히 잘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해주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스피치대회 최우수상, ELLT학과 배OO-

향후 계획

참여 학생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운영 규모와 강사진 구성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으며,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방학 중 일정 조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사후 설문 조사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운영 전반에 반영하는 지속 가능한 피드백 루프를 구축한다면,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완성도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HUFSpeech가 단발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인재를 지향하는 학생들에게 역량 강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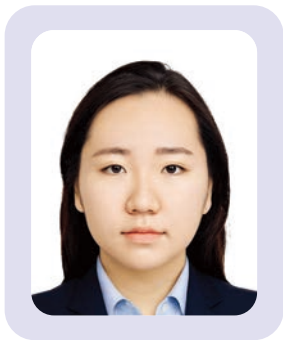
HUFSpeech 대회 사진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연구하는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한동대학교 학부생 논문 연구 지원 사업



연의송

한동대학교
비교육혁신원(교육혁신팀)
연구원

▮ 사업 개요 및 목적

한동대학교는 학부 교육의 질적 제고와 학생 주도 연구문화 확산을 목표로 ‘학부생 논문 연구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본 사업은 전공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장려하고, 학생 스스로 연구를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전문성과 자기주도성을 동시에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사업은 I형(학기 초 모집형)과 II형(상시 지원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I형은 학기 초 연구계획을 공모한 뒤 선정된 팀에 연구비를 지원하고, 학기 말 결과물을 제출받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교수와 함께 연구주제를 구체화하고 실험, 조사, 분석 등 체계적인 과정을 경험하며 학술적 깊이를 더한다.

II형은 학생이 외부 학술대회, 전람회, 컨퍼런스 등에 참가 및 결과물을 확산할 경우 실비(참가비·교통비·숙박비 등)를 지원하는 형태로, 보다 유연하고 실천적이며, 사회적 가치 창출을 지향하는 학술 활동을 장려한다.

외부 발표 이후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학술 활동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도모하고 있다.

▮ 사업 운영 내용

2025년 1학기에는 총 I형 9팀, II형 15팀이 선발되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I형 선정 팀과 주제는 다음과 같다.

- 동헝가족: 관계 중독의 이면에 대한 심리적 동기 분석
- 미드바르: 식물 이미지를 이용한 이상 현상 감지
- 수하광: 영화 추천 모델을 연극 데이터 기반으로 적용한 추천 시스템 연구
- 스카이캐슬: 가족응집성과 대학생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 분석
- 은는의 힘: 한국어 문장에서 조사 ‘은/는’이 부정어 작용역 중의성에 미치는 영향
- 중간바르: 엽채류 생장 예측 AI 솔루션
- Auntie Joy: 결혼이주인 여성의 우울감 개선을 위한 챗봇 개발
- Beyond Screen: 디지털 중독 시대의 삶의 MultiAgent: AI 기반 SNS 자동운영 시스템 연구 의미 탐색

II형 지원 대상 팀과 주제는 다음과 같다.

- 박예준팀: 다중 시계열 대두 가격 예측 모델 개발
- 도시계획팀: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거주공간 분포 특성 연구
- 디지털마케팅팀: 소셜리스팅 기반 디지털 마케팅과 브랜드 충성도 형성 연구
- KOTESOL Panel팀 / Poster팀: 글로벌 협업을 주제로 한 패널 및 포스터 발표
- 로하스빌305호팀: 경상북도 청년 이동 데이터 분석
- 미분양키즈팀: 지역별 미분양 영향요인 분석
- SCOPE팀: 슬랙 사용 유형별 협업 효과 비교
- 태도팀: 웰니스 제품의 아마존 진출 마케팅 전략 수립
- 옥구술팀: 디지털 배지 기반 글로컬 대학 혁신 학기 평가체계 제안
- 최재성팀: 한국 언론의 정신질환 재현 양상 분석
- 매스미디어연구팀: 리얼리티 예능을 통한 이혼 재현 분석
- 옥준용팀: 수요 최적화 예측 프레임워크 실증 연구
- 쿠스팀: 청년 창업 디저트 브랜드 '단지' 사례 분석
- 핸드스캐너팀: 저비용 이동형 3D 손 스캔 시스템 개발

III. 사업 운영 성과

II형 지원을 받은 디지털마케팅팀의 강지호, 정연희(경영경제학부) 학생은 '소셜리스팅 디지털 마케팅이 고객 여정과 브랜드 충성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으로 2025 한국멀티미디어학회 춘계학술발표 대회에 참가해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학부생의 눈높이에서 출발한 연구가 국내 유수의 학회에서 탁월한 성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III.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한동대학교는 본 사업을 통해 학부생이 단순한 지식습득자를 넘어, 능동적인 연구 수행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술 활동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만의 문제의식을 논문이라는 형식으로 구체화 하고, 외부 발표와 피드백을 거치며 학문적 깊이를 더해간다. 앞으로도 한동대학교는 학부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탐구하며,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나가는 연구문화를 조성해가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활동 사진 1



활동 사진 2



2025년도 한국멀티미디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8권 1호

소셜리스팅 디지털 마케팅이 고객여정과 브랜드 충성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 - 비건 브랜드의 Loyalty Loop 사례를 중심으로

강지호*, 정연희*, 채봉수*, 이한진**

* 한동대학교 경영경제학부

** 한동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교수

Corresponding Author e-mail : discover@handong.ac.kr

The Impact of Social Listening Digital Marketing on Customer Journey and Brand Loyalty Formation - Case Study of Vegan Brand Loyalty Loop

Jiho Kang*, Yeonhee Jung*, Bongsu Chai*, Hanjin Lee**

* School of Management & Economics, Handong Global University

** School of Creative Convergence Education, Handong Global University

본 연구는 소셜리스팅 기반 디지털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시행된 제품 체험단 사례를 중심으로, 고객여정 전반에 걸친 경험과 브랜드 충성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연구 대상은 락토프리, 비건, 프도바이오티스 등의 기능성을 강조한 비건 브랜드 BioCG 체험단이며, 고객 여정에서의 경험 설계, 체험 이후 피드백, 전환을 주역들 통해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전환 등 마케팅 효과와 경험의 긍정적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Loyalty Loop' 이론에 기반하여, 고객이 브랜드를 인식하고, 체험하고, 전환하며, 재구매 및 추천으로 이어지는 전체 여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소셜리스팅 기반으로 분석된 제품 체험 디지털 마케팅이 초기 브랜드 인지도 향상은 물론, 장기적으로 브랜드 충성도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체험단 중심 디지털 마케팅의 실증적 효과를 검토한 사례로서, 향후 유사 제품군 또는 주드레드 스타트업 마케팅 전략 수립 시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향을 제시한다.

1. 서론

최근 디지털 마케팅 환경에서는 단순한 광고 노출보다 소비자의 직접적인 브랜드 경험과 상호작용이 구매 결정 과정에 더욱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MZ 세대를 중심으로 유틸리티 소비, 지속 가능성, 감성적 브랜드 스토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브랜드가 제공하는 경험 가치가 소비자 신뢰 형성 및 재구매 의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Lemon & Verhoef(2016)는 고객 여정을 '브랜드와의 상호작용 전·중·후에 걸친 전반적인 경험 흐름'으로 정의하며, 각 단계에서의 경험이 브랜드 충성도 형성과 직결된다고 분석하였다. Kotler(2017) 또한 고객 여정을 인지 → 고려 → 구매 → 사용 → 추천의 5 단계로 설명하면서, 각 단계의 체계적인 설계가 마케팅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제품 체험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 경험 설계는 디지털 마케팅의 전략적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본 연구는 락토프리·비건 콘셉트의 기능성 제품을 중심으로 운영된 실제 디지털 체험단 사례를 통해, 고객여정 상 다양한 접점에서의 경험 설계가 소비자의 브랜드 인식과 충성도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객여정의 각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 중 하나가 브랜드 충성도(Brand Loyalty)이다. Oliver(1999)는 브랜드 충성도를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에 대해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재구매하려는 심리적 헌신 상태'로 정의하며, 이 과정에서 인지된 가치(perceived value)와 감정적 만족(emotional satisfaction)이 핵심 변수로 작용함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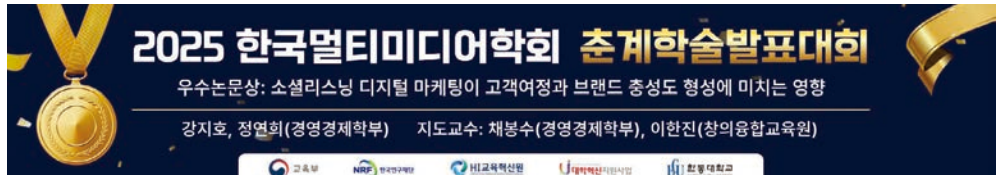
2. 선행연구 검토

디지털 마케팅이 발전하면서 소비자와의 상호작용 방식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경험 중심의 다차원적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고객 여정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소비자의 브랜드 인식 및 행동 과정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체험단 마케팅은 고객의 제품 사용 경험을 유도함으로써 이러한 감정적 만족을 강화하고, 브랜드에 대한 신뢰와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Chopra & Avhad(2022)는 SNS 기반 제품 체험단이 소비자의 제품 수용도와 브랜드 감정 이입(emotional engagement)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우수논문상 논문 첫페이지

-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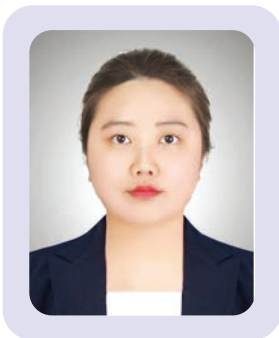


현수막 게시 사진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2024학년도 교육만족도 조사 및 Hallym Census 등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계획



김도경

한림대학교
조사연구부
연구원

2024학년도 시행 조사

▶ 재학생 교육만족도 조사

- 전체 재학생 중 3,616명 참여
- 교육환경, 교육성과, 수업, 교육과정, 대학생활, 학생지도, 대학이미지, 의사소통, 학생지원, 대학혁신, 행정서비스, 총 11개 영역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교외 이해관계자 교육만족도 조사

- 2023년도 2월/ 2024년도 8월 졸업생(20명), 재학생 학부모(20명), 기업체(18명), 지역사회(20명)를 대상으로 초점그룹인터뷰를 진행

▶ Hallym Census

- 전체 재학생 중 3,616명 참여
- 대학생활, 거주 및 통학, 취업 및 진로, 등록금 및 아르바이트, 교육과정, 온라인강의 및 시결합교과목, 기타 영역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복수전공에 대한 재학생 인식과 경험분석

- 재학생 23명을 대상으로 복수전공 제도에 대한 이해, 복수전공 제도 정보획득 방법, 복수전공 제도 활용(경험), 복수전공 제도에 대한 만족 및 어려움, 복수전공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초점그룹인터뷰 실시

주요 조사 결과

▶ 재학생 교육만족도 조사

- 수업, 교육성과, 대학생활, 학생지도 영역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대학이미지, 의사소통, 행정서비스 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 개방형 문항 분석 결과, 교육환경(강의실 노후화, 스마트리드 UI, 와이파이 속도 등), 수업(전공 및 교양 수업 증대, 수강 인원 확대, 수업 질 제고 등), 의사소통(수업 폐강, 교내 행사 일정, 교내 시설 사용 등의 중요 정보 전달 시기·방식 개선 등), 행정서비스(친절한 응대, 부서별 업무 명확화, 전문성 강화) 등에 대한 개선요구가 확인되었다.

III. 교외 교육만족도 조사

- 졸업생

: 진로별 맞춤형 실무형 교육 강화, 실습 매뉴얼 제공, 실습 질적 관리 필요, 졸업 후 네트워킹 및 멘토링 시스템 활성화 희망 등과 같은 개선을 요구하였다.

- 학부모

: 실질적 진로설계 프로그램 확대, 학생역량 개발과 사회적 소통 능력 강화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다.

- 기업체

: 실무 적응 중심의 커리큘럼 개편, 실습 전 직무 관련 사전교육 강화, 우수학생 추천제도 및 인재풀 공유를 주요 요청사항으로 꼽았다.

- 지역사회

: 지속 가능한 협력 구조 정립, 정기 간담회, 공동기획 프로그램 등 활성화, 지역사회 기여 활동에 대한 체계적 기획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III. Hallym Census

- 학사제도

: 복수전공 필수화 제도는 8년째 안정적으로 정착되었으며, 재학생 복수전공 이수율은 83.7%, 만족도는 평균 3.38점(5점 만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복수전공 선택 시 전략적인 선택 경향은 강해졌다. 소속변경 제도에 대해서는 소속 변경자의 82.7%가 학업 적응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는 등 긍정적 경험이 다수였으나, 일부는 회피성 선택으로 분석되었다.

- 온라인강의 및 시결합교과목

: 온라인 수업 수강률은 73.2%, AI 교과목 수강률은 50.4%으로 특히 시결합교과목 수강자의 휴학률이 낮은 경향을 보여 학업 지속성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 시사하였다. 수강 동기로는 온라인 수업은 시간·공간 유연성, 시수업은 역량 강화 기대가 주요 이유로 나타났다.

- 개방형 문항 분석결과

: 캠퍼스 시설 및 학생 지원 서비스는 강점이자 개선 우선 과제로, 교수진과 수업의 질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수강신청, 복수전공 등 학사·행정 운영에 대한 불만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성별, 학년, 편입 여부에 따라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 맞춤형 개선 전략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 복수전공에 대한 재학생 인식과 경험분석

- 학생들은 에브리타임, 선후배, 학과 사무실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다수이며, 공식 정보 채널(홈페이지, 가이드북 등)의 정보는 부족하거나 실질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전공별 상세 정보 부족으로 판단 및 선택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복수전공이 진로 확장과 취업 경쟁력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제도 전반에 대한 실질적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어려움은 인기 전공 수강 불가, 전공 간 시간표 중복, 교수 간 연계 부족, 교과 난이도 차이, 학문적 깊이 부족 등이었다.

▣ 주요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과제 및 관련 개선 계획 일부

▶ 교수·학습 환경 개선

- (자연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이론 전공 교과목 실무 교육 추가 및 세부 트랙제 강화
- (간호대학) 임상시험운영관리자 나노디그리 과정 개설
- (일송자유교양대학) 신입생 프로젝트 교과목 공모 및 운영, 공모를 통한 교과목 개편 및 신설

▶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학업 지속성 확보

- 전자출결 시스템 오류 방지 및 개선, 비콘 추가 설치
- 학생 요구사항을 반영한 세부 성적 공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학생생활관 1관 시설 및 환경 개선
- 무선 AP 재배치·추가 설치 및 최신 네트워크·보안 장비 도입
- 생명과학관 및 공학관 내 강의실 및 실습실 환경개선, 생명과학관 1층 창의융합공간 조성

▶ 학업 지속성 확보를 위한 대학생활 경험 강화

- CLC 중강당 시설 개선 및 동아리 활동 지원 확대
- (캠퍼스라이프 카운슬링센터) 신입생 및 기숙사생 집단상담 프로그램에대인관계 및 학교 적응 관련 회기 추가

▶ 복수전공 제도 및 소속변경 제도 고도화

- 기초/심화 이수체계 분리 설계 권장
- 전공박람회 확대 운영, 융합전공 학생 지도 및 상담 적극 지원
- 대학 홈페이지 및 포털 사이트 신규 구축을 통한 정보 제공 기능 강화 및 시 챗봇 활용 학사 정보 등 실시간 서비스 제공

▶ 학생참여 기반 소통체계 개편

- (데이터사이언스학부) 학생참여 소통창구 확대(인스타그램 추가 등)
- (글로벌융합대학) 공지사항 안내 채널 확대(학과(부) 홈페이지, 문자, SNS(카카오톡, 위챗) 등)

▶ 글로벌대학 대응 및 지역사회 연계 고도화

- 어드벤처학기 도입 및 운영 예정
: 담당교수 연계 등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 발굴 및 교수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지-산-학 협업 프로젝트 운영
- (지역정주지원센터) G역탐방 운영
: 동해 지역 활성화(건통시장, 해안관광) 프로젝트 운영
- 글로벌대학 홍보 콘텐츠 제작

▶ 온라인 및 시결합교과목 운영확대 및 질관리

- 온라인 수업설계, 시기반 교육 활용법, 공정한 평가 방안 등을 주제로 정기 워크숍과 연수과정 운영

▶ 중도탈락 예방

- 시도우미 시스템 도입을 통한 비대면 소통채널 운영
- (캠퍼스라이프 카운슬링센터) 신입생 중도탈락 위험군 학생 대상 진로 집단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기숙사집단 프로그램 등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되는 카운슬링센터 집단 프로그램에 대해 우선적으로 문자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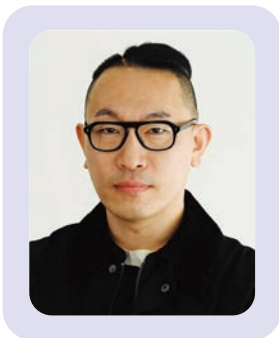
▶ 행정서비스 개선

- (간호대학) 학생대표 및 보직자 단체 채팅방 개설
- (글로벌융합대학) 전공별 재학생 참여 SNS에 담당자 참여
- (정보과학대학)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매뉴얼 정비 및 인센티브 강화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런던에서 배우고 시장에서 검증하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한 실전형 글로벌 창업교육 사례



홍성재

한성대학교
창업지원센터
센터장

▮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실현된 한성대학교 글로벌 창업교육 프로그램

한성대학교는 2024년 겨울,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영국 런던에서 학생들이 직접 창업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발표하는 글로벌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는 창업 아이디어를 실제 글로벌 시장에서 실험 및 검증할 수 있는 실전형 교육 모델로, 학생의 창의성과 실행 역량을 동시에 확장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기획·운영되었으며, 고품질 해외 교육 콘텐츠가 현실화될 수 있었던 핵심 배경이 되었다. 한성대학교는 런던 최대의 공공 직업교육기관인 Capital City College(CCC)와 협력하여 본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CCC는 런던시가 운영하는 영국 최대 규모의 공공 직업교육기관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재정을 활용하여 CCC의 창업 커리큘럼과 현장 중심 피드백 시스템을 접목한 이번 프로그램은 실전 창업 경험을 제공하는 국내 대학 교육의 선도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 1단계: 온라인 예비교육과 참가자 선발

2024년 11월 12일부터 약 3주간 진행된 1단계 온라인 교육에서는 총 32명의 학생이 참여해 CCC 강사진으로부터 창업 기획, 시장 분석, 고객 세분화, 비즈니스 모델 수립, 피칭 전략 등 실무형 내용을 배웠다. 학생들은 자신의 창업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피드백을 통해 실전 감각을 키웠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반 스포츠 영상 분석 서비스, 외국인 대상 K-컬처 관광 콘텐츠, 반려식물을 활용한 스트레스 완화 및 정서 안정 제품, 지역 기반 의류 공유 플랫폼, 캐릭터 브랜드와 F&B 융합 아이템 등 창의성과 시장성을 동시에 갖춘 아이디어들이 등장하였다. 평가를 통해 최종 12명의 학생이 선정되어 런던 현지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다.

▶ 2단계: 런던 현지 집중 교육

2025년 1월 20일부터 31일까지 런던에서 진행된 2단계 교육은 실습 중심의 집중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학생들은 영국 도착 직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현지 문화와 창업 환경을 이해한 후, CCC가 마련한 일일 교육과정에 참여하였다. 시장 조사 설계, 소비자 분석, 경쟁 제품 파악, 피칭 훈련, 프로토타입 구상 등 실제 창업과정에 가까운 커리큘럼이 운영되었다. 학생들은 영어 발표 역량, 시장 대응 전략, 브랜드 포지셔닝 감각을 빠르게 습득하며, 기존 아이디어를 현지 소비자 중심으로 수정해 나갔다. 특히 실무형 과제를 기반으로 팀워크를 다지고, 실제 현장 기반의 브랜딩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을 통해 창업의 실행력과 시장 현실성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 3단계: 마켓 테스트 및 피칭데이

현장 교육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창업 아이디어를 실제 고객에게 소개하고 피드백을 수집하는 '마켓 테스트'가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런던 중심가 등에서 소비자와의 직접 소통을 통해 명함, 브로셔, SNS 홍보 콘텐츠를 활용하여 제품·서비스를 소개하였다. 일부 팀은 20~30명의 고객을 인터뷰하고, 피드백 설문을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의 반응을 정리·분석하였다. AI 영상 콘텐츠 팀은 영국 스포츠 커뮤니티에 서비스를 시연하였고, K-컬처 기반 콘텐츠 팀은 외국인 대상 문화투어 기획안을 바탕으로 런던 공연장 앞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며 고객 니즈를 확인했다. 이후 CCC 전문가 및 외부 창업 관계자들이 참여한 '피칭데이'에서는 학생들이 영어로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질의응답에 응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전문가들은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글로벌 확장 가능성에 대해 평가하고 조언을 제공했다. 일부 팀은 후속 온라인 미팅 요청을 받으며 창업 실현의 가능성을 이어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창업가적 시선으로 도시를 읽다

정규 수업 외에도 학생들은 자유시간을 활용해 런던 곳곳을 탐방하며 창업 인사이트를 쌓았다. 한 학생은 “박물관에서의 큐레이션 방식과 관람객 동선을 관찰하며,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참가자는 “자유시간 동안 만난 거리의 창업자들과의 짧은 대화가 이후 피칭 전략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이처럼 학생들은 단순한 관광이 아닌, 창업가의 시선으로 도시를 관찰하고 문제를 발견하며 해법을 상상하는 태도를 통해 자유시간도 학습의 연장선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마켓 테스트 전략 보완과 피칭 구성 수정으로도 이어졌다.

▮▮▮ 개인과 팀의 실질적 성과

학생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적 성장과 팀 차원의 성과를 모두 이루었다. 일부 팀은 귀국 후 초기 창업패키지, 넥스트로컬 등 경쟁률 높은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기술 기반 아이템을 구상한 팀은 마켓 테스트를 통해 프로토타입을 현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켰고, 인문·예술계열 참가자들은 영어 피칭과 콘텐츠 구성을 통해 발표력과 마케팅 감각을 키웠다. 또한, CCC 전문가와의 후속 미팅이나 피칭자료에 대한 피드백이 이어지면서,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사업화를 이어가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단발성 체험을 넘어, 지속 가능한 창업 경험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결정적 역할

이번 글로벌 창업교육 프로그램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재정 지원이 있었기에 실현가능했다. 항공료, 숙박비, 교육비, 마케팅 콘텐츠 제작, 피칭 행사 운영비 등 다방면에 걸쳐 고비용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이었지만, 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학생들은 금전적 부담 없이 고품질 글로벌 교육을 누릴 수 있었다. 이는 ‘누구나 실전형 글로벌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 복지 실현’이라는 혁신사업의 목적과 정확히 부합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 향후 과제와 확장 계획

지도 교수인 홍성재 교수는 “학생들이 수업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아이디어를 직접 검증한 경험이 가장 큰 성과”라며 “이 프로그램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창업 여정으로 이어져 향후 한성대학교 글로벌 창업 인재 육성의 베이스 캠프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향후 한성대학교는 이번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참여 학생들의 지속적인 창업 멘토링과 후속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CCC와의 협력을 통해 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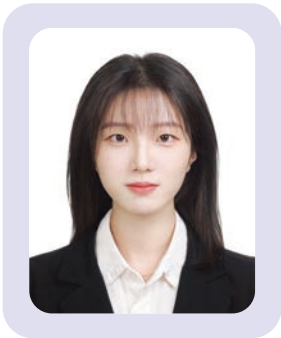
마켓 테스트 기반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후속 기수 학생들이 선배들과 연계해 창업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멘토-멘티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글로벌 창업교육 프로그램은 이론 중심의 기존 창업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이 주도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한성대학교는 학생의 글로벌 도전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창업 이후의 여정도 함께 설계해 나가고자 한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전공으로 미래를 설계하다! 2025 HY ERICA 전공페스티벌 개최



김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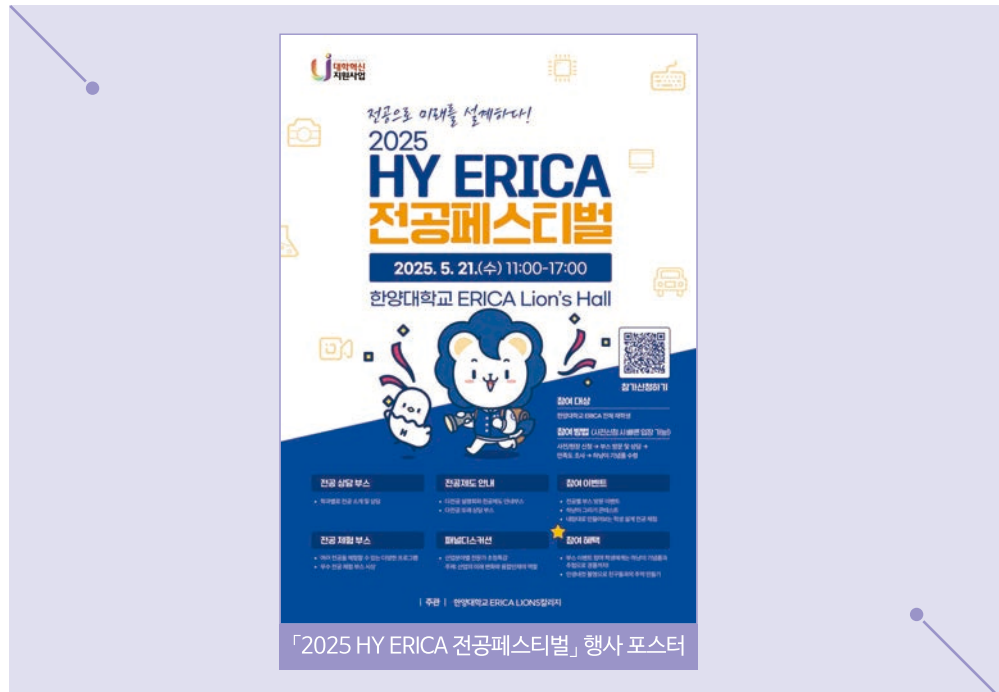
한양대학교
ERICA LIONS칼리지 RC
직원

추진배경 및 목적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는 전공 선택을 앞둔 LIONS칼리지(자율전공학부) 학생들이 스스로 전공을 탐색하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25 HY ERICA 전공페스티벌」을 기획했다.

본 행사는 LIONS칼리지 신입생뿐만 아니라 다중전공, 융합전공, 전과 제도를 고민하는 재학생들에게도 실질적인 정보와 도움을 제공하고자, 총 32개 전공 학과와 유관 행정 부서가 협력하는 폭넓은 진로 탐색 프로그램으로 마련되었다.

전공을 선택하는 데 있어 단순한 흥미와 인기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향후 산업 변화를 통찰하는 안목을 갖고 전공의 특성과 진로 방향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본 행사의 핵심 취지이다.



「2025 HY ERICA 전공페스티벌」 행사 포스터

▣ 운영 내용

「2025 HY ERICA 전공페스티벌」은 5월 21일 LION'S Hall에서 개최되었으며, 총 32개 전공과 관련 부서가 참여해 다양한 형태의 부스를 운영하였다.



주얼리·패션디자인학과 전공 상담·체험 부스



기계공학과 전공 체험 부스

‘전공별 1:1 맞춤 상담 부스’에서는 교수진과 전공 학생회가 직접 커리큘럼 소개, 진로 정보, 전공 특성 비교 및 우위에 대해 설명하며 학생들과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했다.

한편, ‘전공 체험 부스’에서는 이공계열 학과는 VR, 로봇,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실습을 중심으로 체험 콘텐츠를 구성하였고, 인문·사회계열 학과는 전공 퀴즈와 이벤트를 활용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전공별 특성을 살린 접근이 돋보였다.



‘산업의 미래 변화와 융합인재의 역할’ 패널디스커션 진행

이와 함께 메인 이벤트로는 ‘산업의 미래 변화와 융합인재의 역할’을 주제로 한 패널디스커션이 마련되었다. 현대자동차, SK ON, Entegris Korea, 네이버 AI Lab, 건원엔지니어링, 신한은행 등 주요 산업군(자동차, 반도체, AI, 건축, 금융)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하여 각 산업의 동향과 인재상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였고, 학생들의 사전 질문을 바탕으로 실무 중심의 질의응답을 이어졌다.

이외에도 다중전공 또래상담사 부스 및 국제팀·현장실습지원센터·커리어개발팀 등 다양한 학생·행정 부서 부스가 함께 운영되어, 학생들이 전공 탐색뿐만 아니라 대학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고 폭넓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운영 결과

만족도 조사 내용		사업내용
분야별 만족도	전반적인 행사 만족도	4.65
	행사 장소와 시설 만족도	4.63
	운영과정 전반 만족도	4.67
	전공 또는 관심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	4.49
	학업 설계 및 진로계획에 도움	4.50

표 1- 행사 만족도 분석 결과(421명 응답)

행사 종료 후 학생들의 만족도는 직접 참여한 학생들의 투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전공 체험 부스를 운영한 학과들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 콘텐츠를 준비하여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수 전공 체험 부스 시상식’이 진행되어 우수 부스가 선정되었다.

최우수 부스는 자동차 시뮬레이션과 3D프린팅 체험을 통해 높은 관심을 끈 기계공학과가 수상하였다.

이번 「2025 HY ERICA 전공페스티벌」은 학생들에게 평소 접하기 어려운 실무 중심의 전공 정보와 진로 조언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관심 전공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와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시간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학대학 에너지바이오학과 이영복 교수는 “학과 소속 변경 이후 새로운 홍보의 기회가 필요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학생에게 우리 학과를 소개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이렇듯 각 학과에도 실질적인 홍보 효과가 있었다.

또한,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을 학년별로 분석한 결과, 1학년뿐 아니라 2학년 이상 재학생들의 참여도 두드러졌으며, 이는 본 행사가 신입생만을 위한 전공 안내에 그치지 않고, 전과, 융합전공, 다중전공 등 다양한 진로 탐색을 고민하는 전 학년 학생들이 함께할 수 있는 유의미한 프로그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전공 체험 이후 관심 전공이 바뀐 학생들의 수가 적지 않아,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진로 변화의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구분		인원(명)	비중	소계
총 참여 인원		846		
학년	1학년	452	53.4%	846
	2학년	152	18.0%	
	3학년	116	13.7%	
	4학년이상	50	5.9%	
	대학원생	32	3.8%	

표 2 - 학년별 참여인원 분석 결과

향후 계획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는 「2025 HY ERICA 전공페스티벌」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 주도의 진로 설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LIONS칼리지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함에 있어 체계적인 탐색과 충분한 고민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전공 탐색 프로그램과 진로 연계형 비교과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학과와 학생, 산업계가 함께 소통하며 진로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들을 정기적으로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전공과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실습에서 실전으로, 준비된 전문가의 마음을 돌보다’ 실습수업 경험학생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이도은

호원대학교
심리상담센터
팀원

추진배경

실습은 현장 진입 전 가장 실제적인 직무 경험이자, 예비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처음으로 마주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익숙하지 않은 환경, 낯선 인간관계, 실무 부담 등은 실습생에게 높은 수준의 심리적 피로와 정서적 혼란을 유발한다. 이에 따라 심리상담센터는 실습생들이 보다 주체적이고 회복력 있게 실무 경험을 소화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준비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심리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공통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소통과 지지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스트레스 완화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

추진내용

▶ 운영 개요

- 운영 기간: 2025년 3월 4일 ~ 6월 13일
- 운영 방법: 온라인 검사 및 맞춤형 대면 프로그램 제공
- 참여 대상: 실습수업 경험 재학생

▶ 운영 절차 및 구성

- 프로그램 계획 수립 → 참가자 안내 및 모집(공문 및 홍보)
- 소규모 집단면담을 통한 실습 경험 공유 및 스트레스 상태 점검 / 실습 중 겪은 정서적 어려움 표현 및 스트레스 해소법 안내
- 위험군 선별 시 맞춤형 개인 상담 연계(필요자 대상)
-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 조사 및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환류 실시

▶ 프로그램 단계

① 목적 안내 → ② 실습 경험 공유 → ③ 고충 및 감정 나눔 → ④ 스트레스 관리법 학습 및 개인 상담 집단 구성 및 대면 면담을 통한 실습 경험 공유

▶ 주요 프로그램 사례

- 1학기: 간호학과·응급구조학과 실습생 대상 집단상담
- 2학기: 사회복지학과·물리치료학과 실습생 대상 집단상담

■ 추진성과

▶ 정량 성과

- 2025학년도 1학기 운영결과: 총 70명(간호학과 등 2개 학과)
- 만족도 4.66/5.0

▶ 정성 성과

- 실습 스트레스를 단순 감정 소모가 아닌 성장의 자산으로 전환
- 집단 내 유사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적 지지망 형성
- 실습 이후에도 심리적 자기돌봄 태도 강화

▶ 프로그램 참여자 의견

- ‘실습 경험을 공유하면서 속에 응어리가 덜어지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공감적 피드백 덕분에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 ‘실습 정보도 얻고, 이야기 나누며 긴장이 많이 풀렸습니다.’
- ‘실습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며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었다.’
- ‘선생님이 재밌으시고 잘 들어주셔서 좋았습니다. 의도치 않게 물리치료학과분들이랑 같이 진행하게 되었는데 저희 학과랑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들을 들을 수 있어 새로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실습 때 겪은 이야기를 말하면서 그때의 추억이 생각나기도 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025학년도1학기

2025.05.

기본 실습의 정석®

실습경험학생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상담사 이 도 은

간호학과심전 대비

02

1단원

현타가오는 순간: 간호학

학·습·목·표 나만 구리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는다.

1 정의

현타: 현실자각태임의 줄인 말 헛된 꿈이나 망상 따위에 빠져 있다가 자기가 처한 실제 상황을 깨닫게 되는 시간을 뜻한다.

2 극복

숙면, 맛있는 거 먹기(3학년), 술마신다(4학년), 뜨개질, 배달의 민족 보기
집순이 드라마 보기

간호학과 현장 실습 학과의 고충..

- 병바벵, 상대적으로 바쁜 내과 병동
- 실습과 동시에 드럽게 많은 과제
- 태움의 현장 목격, 저게 내 미래의 모습인가
- 바쁜 병동의 '야' 학생입장에서는 첫날이지만 학생을 받는 병원 입장에서는 n번째! 인격을 분리해서 실습할 것!
- 매일 보던 환자들이 퇴원할 때 보람된다.
- 비협조적인 환자를 만날때 너스레가 는다.
- 기도실관 중에는 협조적이었다가 불평불만 늘기 시작하면 병환이 나아진 것 같아서 좋다.
- 같이 하는 실습행사가 중요하다. 외로움을 달래야 함.
- 간병인과 간호사의 다름. 목적 선조치 후보고
- 정신간호학 실습이 가장 힘들. 조현병(편집성) 대화의 흐름을 따라가기 힘들어.
- 가정소모가 많아 유급실. 주화자실. 특수파트를 선호함.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이 프로그램은 실습 스트레스라는 공통의 주제를 중심으로 자연스러운 소통을 유도하여, 심리상담센터를 보다 친근하고 일상적인 심리 지원 공간으로 인식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같은 실습 경험을 나누며 집단 내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를 통해 참여 학생들 간 정서적 지지 체계가 자연스럽게 마련되었다. 실습 과정에서 느낀 감정과 어려움을 공유하며 서로 위로하고 지지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상호 지지망이 형성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상담센터는 학생들에게 정서적 지지와 스트레스 관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었으며, 실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부담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다. 향후에도 실습 스트레스와 같은 공통의 관심사를 활용한 집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건강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학생사례

Student case

구슬처럼 빛난 한 학기, KU자유전공학부에서 찾은 나의 이야기



최수진

건국대학교
KU자유전공학부
학생

한 학기동안 건국대학교 KU자유전공학부 학생으로 지내면서,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대학교에서의 추억이 많았습니다. 처음 입학할 때는 신설된 학과라는 새로운 환경과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설렘과 걱정이 공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만의 소중한 이야기가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 중, 구슬탐험대, 구슬이음캠프, 융합사고력 프로젝트가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릅니다.

먼저, '구슬탐험대'는 전공 진입 이전에 학과 및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체, 연구소, 기관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경영에 관심이 있어서 SK이노베이션에 다녀오는 구슬탐험대에 참여했습니다. 대학생이 대기업 견학을 하고, 현장의 최전선에서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구슬탐험대가 KU자유전공학부가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혜택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덕분에 제가 평소 관심 있었던 학문으로 어떤 직무가 이루어지고, 그 학문을 잘 응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내가 대학생 때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저희 학교 졸업 선배님과 질의응답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할 수 있어서 제 미래를 설계하는데 아주 유익했습니다. 구슬탐험대에 다녀온 이후에 다른 친구들에게 우리 학교에는 '구슬탐험대'가 있다고 자랑한 기억이 남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구슬이음캠프'를 다녀왔습니다. '구슬이음캠프'는 '나'를 이해하고, '우리'를 이어주는 KU 자유전공학부의 2박 3일 방학 프로그램입니다. 대학교에서의 첫 방학을 맞이하면서, '무엇으로 방학을 시작해야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그 때 학부 차원에서의 방학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이면 후회가 남지 않겠다!'라는 설레는 마음에 지원했습니다. 체육대회, 레크레이션처럼 학부 친구들과끼리 단체활동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현재 창업 시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졸업 선배님들의 토크 콘서트, Wefit 성향 검사를 통해 자기 이해를 높이는 활동처럼 구슬이음캠프에서만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었습니다. 사실, 토크 콘서트에서 졸업 선배님들이 해주신 강연이 인상 깊어서 학교 보도자료나 토크 콘서트에서 알려주신 홈페이지를 찾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다른 추억은 ‘융합사고력 프로젝트’입니다. ‘융합사고력 프로젝트’는 다양한 학문을 접목하여 팀 단위로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인 결과물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1학기에는 ‘행성 이주’라는 컨셉으로, 행성으로 이동시킬 인류의 유산을 선별하고 이를 보호하는 착륙선을 제작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행사 전에 따로 모여서 착륙선 구조를 어떻게 만들지, 구조물에 대한 스토리는 어떻게 할지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 운영진 측에서 제공해 주신 준비물들이 많아서 어떤 재료로 어떻게 설계해야 착륙선이 가장 안전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지 팀원들과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또, 착륙선 디자인 부문 수상에 목표를 두고, 어떤 스토리로 구조물을 구축해야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도 토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막상 행사 당일이 되니, 긴장감과 부담감이 커서 시간이 짧다고 느껴졌지만, 2층에서 착륙선을 떨어뜨렸을 때 인류의 유산이었던 달갈이 안 깨진 걸 보고 ‘우리가 해냈다!’ 싶었습니다. 비록 3층에서 떨어뜨렸을 때는 달갈이 조금 깨져있었지만요.

그래도 학부 친구들과 함께 협력심을 발휘해서 진심을 다해 활동을 할 수 있던 것이 지금 생각하면 잊지 못할 큰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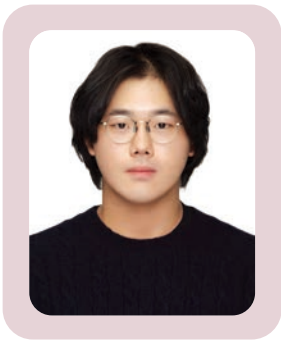


대학교 4년에 비하면 한 학기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KU자유전공학부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소중한 추억과 배움의 기회를 안겨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넓은 세상에 도전하며, 저만의 길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학생사례

Student case

인공지능을 결들인 경영학, 이분법적 전공 분류에서 벗어나다



박세람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학생

일반적으로 경영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것 같은 전공에 인공지능이라는 전공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전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복수전공으로 왜 인공지능을 선택하게 되었느냐라는 질문에는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상과 이러한 빠른 변화가 학교에서의 수업 환경까지 바꿔놓고 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군복무를 이행하기 위해 학업을 잠시 멈추는 휴학 기간 동안 제가 알고 있던 학교의 모습은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종이나 노트에 연필과 펜으로 필기를 하던 학우들은 어느새 각자의 태블릿을 사용하여 수업 내용을 필기하고 있었고, 발표자료와 에세이와 같은 과제는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군복무 전에도 인공지능의 존재나 활용사례들은 알고 있었지만, 학교 과제와 같이 실생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발전했는지 알게 된 이후 작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달라진 학교 환경에 당황스러움도 잠시, 이러한 변화에 따라가기보다는 먼저 앞서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자는 생각에 저의 주전공인 경영학과 거리는 있어 보였지만 인공지능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전공의 수업들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위한 수학적 지식과 인공지능을 실제로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기술처럼 크게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저는 문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경영학과를 주전공으로 이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인공지능 전공을 복수로 이수하고자 하는 공과, 자연과학대학 학우들보다 수학, 프로그래밍 능력이 많이 부족할 수 있겠다는 걱정 역시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족함을 조금이나마 메꾸기 위해 복수전공 이수를 신청하고 학기 중간 방향 기간마다 ADSP, SQL과 같은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분석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공부를 병행하며 정규 학기마다 있을 인공지능 전공 수업을 조금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대비했습니다.

방학 중 모든 자격증 공부에 저에게 좋은 결과로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던 자격증 공부도 그 과정이 돌고 돌아 학교에서의 인공지능 수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어 기존 경영학 지식만으로는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공지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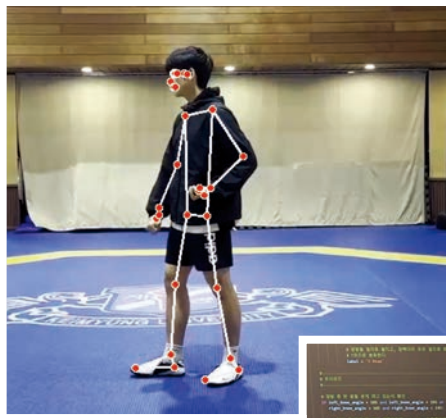
나아가 복수전공이라는 것은 누군가 시켜서 하게 되는 공부гаа 아닌 본인 스스로 필요와 흥미를 느끼고 선택한 과정이기에 저 역시 인공지능 전공 커리큘럼 안에 구성된 수업들을 좋은 성적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책임감에 수업 시간에는 내향적이었던 제가 먼저 교수님께 수업이 끝난 후 해결되지 않은 궁금함은 질문을 드려 해답을 얻어내고 면담을 요청드려서 앞으로의 학습 전략과 향후 진로에 대해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범주보다 다각적이고 넓은 시야를 공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인공지능이라는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과정이 단순히 전공이 하나가 더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필요로 해서 하게 되는 공부가 무엇인지, 공부 과정에서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도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게 되는 단순히 수업을 수강하기만 해서 얻은 수 없는 귀한 지식과 경험을 체험하고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원해서 시작하게 된 인공지능 공부는 좋은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경영학 하나만을 이수하고 있던 때보다 학점이 높아지는 결과를 얻게 되면서 새로운 길을 병행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상을 받은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공이 하나일 때와 비교했을 때 전공 수업의 비중이 높아져 한 학기에 해야 할 것이 많아 바빠져서 힘든 부분은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기에 힘들어도 공부하는 과정에서의 재미와 문제점을 해결했을 때의 성취감은 좋은 학점보다도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성취감을 느꼈던 수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인공지능 프로젝트 수업이었는데 해당 수업은 별도의 시험 없이 한 학기 동안 하나의 프로젝트 주제를 정해서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학기 말에 교수님과 같은 수업을 듣는 다른 학우들 앞에서 발표하는 수업 형태였습니다.

프로젝트 수업에서 비록 경영학과 학생이었던 제가 감사하게도 조장을 맡게 되며 한 조의 학기 단위 프로젝트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저희 조에는 서로 다른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많았지만, 그중 태권도 전공 학우의 아이디어로 태권도를 비롯한 사람의 자세를 인식, 분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의 프로젝트라는 조별과제 수업이 항상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않지만,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을 대입해보거나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대면한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은 저에게 학업, 기술적 성장과 더불어 사람들을 융합하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인문학적 능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과정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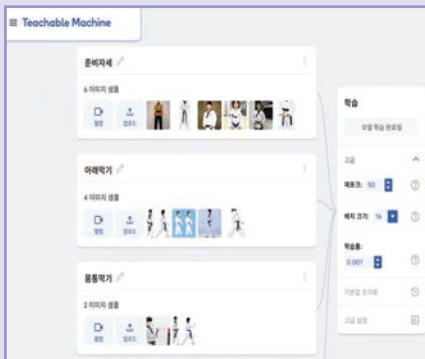
◀ 프로젝트
 중간 시연



▲ 프로젝트
 코드 작성 중
 테스트 ①



프로젝트 ▶
 코드 작성 중
 테스트 ②



▲ 기계학습(머신러닝) 학습 과정

```

24 # 3D 각도 계산 함수
25 def calculate_3d(point1, point2, point3):
26     v1 = [point1[i] - point2[i] for i in range(3)]
27     v2 = [point3[i] - point2[i] for i in range(3)]
28     dot = sum([v1[i] * v2[i] for i in range(3)])
29     norm1 = math.sqrt(sum([v1[i] ** 2 for i in range(3)]))
30     norm2 = math.sqrt(sum([v2[i] ** 2 for i in range(3)]))
31     if norm1 == 0 or norm2 == 0:
32         return 0.0
33     angle = math.degrees(math.acos(dot / (norm1 * norm2)))
34     return angle
    
```

▲ 수학과 수업에서 배웠던 공식을 프로젝트 코드에 활용

이런 과정에서 졸업을 앞둔 4학년이기 때문에 향후 진로에 대한 고민 역시 많았습니다.

특히 경영학만을 이수하고 있을 때는 어떤 진로를 선택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제 안에 세워지지 않아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다만 인공지능을 복수로 전공하며 문과나 이과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한 방향의 진로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두 전공을 합쳐보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영학 중에서도 숫자를 다루는 재무관리와 경제, 투자 관련해서 경영학을 구성하는 다른 수업들보다 흥미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영학 요소에 인공지능을 더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학습 목적으로 하는 주식 투자 활동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인공지능이 관여할 수 있다면 사람이 분석해야 하고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주관적일 수 있는 주식투자에서의 의사결정이 좀 더 수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되고 이에 투자의 성공률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꿈꾸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좀 더 깊고 높은 수준의 지식이 필요하다고 느껴 현재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경영학을 전부 다룰 수 있는 산업경영학과 관련된 대학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문과, 이과를 나누기보단 인문학적 소양과 수학, 공학적 소양을 두루 갖춘 인재가 현대 사회의 문제 점을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기에 문과나 이과나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전공의 형태보다는 복수전공을 통해서 서로 다른 방향성을 지닌 두 전공을 모두 이수하여 만약 본인의 주전공과 대비되는 전공을 접하는데 두려움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성인이 되자마자 대학에 진학하여 선택하게 되는 전공을 너무 설부르게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학우들에게 본인의 주전공과 전혀 다른 전공을 복수로 이수해보는 방법도 졸업 후 본인이 갖게 될 진로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전공처럼 하나의 전공이 아닌 여러 전공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융합 전공 시스템 역시 활용해 볼 기회가 있다면 꼭 경험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학생사례

Student case

함께 듣고, 함께 성장하다 ‘또래 Together’가 남긴 변화



최은희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학생

저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된 ‘또래 Together’ 상담 프로그램에 또래 상담자로 참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단순히 또래 간의 상담 활동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자신의 정서적 어려움을 비슷한 또래와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뜻깊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 전에는 낯설고 어색한 활동에 대한 걱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단순한 활동을 넘어 소중한 의미를 남긴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저는 주변 친구들의 고민을 잘 들어주는 편이었고, 누군가가 제게 마음을 터놓는 순간들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런 제게 이번 활동은 단순한 봉사나 경험을 넘어서, 사회복지학과 학생으로서 실천적 의미가 매우 큰 기회였습니다. 실제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 기초를 쌓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평소 다양한 전공의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서로 다른 시선과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 협력하는 과정도 저에겐 큰 배움이었습니다.

상담자로서의 활동은 단순히 마음을 나누는 일이 아닌, 전문적인 태도와 기술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활동에 앞서 참여자들은 사전 전문 양성 교육을 받았는데, 이 교육 과정은 제가 ‘상담자’라는 역할을 보다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담 기술, 윤리적 태도, 상황 대처 방법 등을 배우며, 단순한 대화를 넘어 상대방의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지지하는 자세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조별 활동으로 구성된 아이스브레이킹 활동과 모의 상담 실습은 실제 상담 상황에서의 긴장감을 덜고, 동료 상담자들과의 협력 관계를 자연스럽게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 상담 활동을 시작할 때는 솔직히 많은 부담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상대방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러나 상담을 직접 진행해보며 하나씩 경험을 쌓아가자 점차 자신감이 붙었고, 무엇보다 멘티들이 저를 신뢰하고 편안해지는 모습을 보며 ‘내가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에서 배운 공감 표현, 감정 언어 사용, 대화 흐름 잡기 등의 기술은 실제 상담 현장에서 무척 유용했고, 덕분에 멘티들과 보다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멘티는 친구와의 갈등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친구였습니다. 그 멘티는 자신의 감정과 주변 상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타인의 감정, 주변 상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타인의 감정을 정리하는 데 익숙하지 않았고, 주변 상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타인의 감정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었습니다. 처음 상담을 시작했을 땐 이야기를 풀어내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마음을 열고,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한 학기 동안 꾸준히 상담을 이어가면서 그 친구는 자신만의 심리적 거리 두기 방법을 찾아가기 시작했고, 마지막 상담에서는 “요즘은 나를 좀 더 아끼게 된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상담자라는 역할의 무게와 보람을 진심으로 느꼈고, 이 경험이 제 마음 깊이 오래 남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중간에는 ‘힐링 심화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어, 상담 기술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또래 상담자들 간의 팀워크를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례를 공유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며 다양한 접근 방법을 모색해가는 과정은, 상담자 개인의 역량을 넘어서 하나의 상담 공동체로서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감각을 느끼게 했습니다. 동료 상담자들과의 협력과 피드백을 통해 저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상담자가 되기 위한 태도와 방향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상담 외에도 ‘또래 어울림 봉사활동’을 통해 멘티들과 함께 학생상담센터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캠퍼스 안 다양한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는 활동도 경험했습니다. 단지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같은 캠퍼스를

살아가는 동료'로서 누군가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함께할 수 있다는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더욱 깊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멘티들과의 관계도 더 단단해졌고, 서로를 향한 신뢰도 깊어졌습니다.

프로그램의 마지막에는 활동에 대한 교류, 그리고 수료식을 통해 한 학기 동안의 여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른 상담자들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의 노력을 격려하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활동을 마무리했는데, 저는 운 좋게 우수상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을 다해 임했던 시간이 인정받은 것 같아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주는 것'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체감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꼈지만, 상담이란 결국 상대방이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되면서, 훨씬 자연스럽게 진정성 있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상담자와 멘티 사이의 신뢰와 라포도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고, 저 자신도 더 안정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 활동이 끝난 이후에도 제 일상 속 대화 방식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조언보다는 감정에 공감하고 함께 고민하려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이런 변화는 앞으로 사회복지사로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제게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결국 사회복지 실천의 핵심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그 첫걸음을 내디뎠고,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또래 Together'는 제게 단순한 비교과 활동을 넘어, 타인과 나 자신 모두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고, 대학생활의 가장 뜻깊은 경험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에게 정서적 지지와 성장의 기회를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저 역시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사회복지 실천과 공감 능력을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학생사례

Student case

AI 시대, 나의 학습법이 달라졌다 2025-1학기 DEU 학습법 특강



김지현

동의대학교
공과대학 산업ICT기술공학
학생

▮ AI 시대, 나의 학습법이 달라졌다

▶ DEU 학습법 특강

저는 어릴 적부터 IT분야에 관심이 많아 자연스럽게 관련 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전공 수업을 들으며 웹 개발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최근에는 앱과 웹 개발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의 활용이 필수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AI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개설된 DEU 학습법 특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는 제게 꼭 필요한 기회라고 느껴져, 망설이지 않고 신청했습니다.

▮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인상 깊었던 점

‘AI를 활용한 학습법 특강’은 AI 문해력의 필요성, ChatGPT의 기능과 보안 설정, 다양한 생성형 AI 도구의 소개 및 활용 시연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ChatGPT의 보안 설정 기능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설정 메뉴에서 “모델 개선을 위한 대화내용 저장” 옵션을 비활성화함으로써, 대화 내용이 모델 학습에 사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I 도구를 활용하며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디지털 윤리임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AI 기반 학습 도구들이 소개되었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도구는 Google의 NotebookLM이었습니다. 이 도구는 PDF 자료나 유튜브 강의를 업로드하면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자동으로 문제를 생성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과제를 준비하거나 시험공부를 할 때 시간을 절약하며 학습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AI 도구를 직접 체험해 보며 실제 학습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다양한 예시를 접할 수 있었고, 각 도구의 장단점을 비교해보며 자신에게 맞는 도구를 선택하는 시야도 넓힐 수 있었습니다.



2025-1학기 오프라인 DEU 학습법 특강 현장 모습

▮ 앞으로의 다짐

이번 특강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으로서 어떤 태도와 역량이 필요한지 깊이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며, AI를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전략적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강의 끝부분에 소개된 젠슨 황(NVIDIA CEO)의 말이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체한다.”

이 문장은 앞으로의 학습과 진로 준비 과정에서 AI와 어떻게 공존하고, 이를 나만의 역량으로 내면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지식을 쌓는 데 그치지 않고, AI를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며 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자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함께 성장하는 캠퍼스를 꿈꾸며

DEU 학습법 특강은 개인에게 큰 전환점을 준 배움의 시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지 체감할 기회였습니다. 기술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화하겠지만 그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힘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처럼 유익한 프로그램이 지속해서 운영되어, 더 많은 학생이 AI를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저 또한 이번 특강에서 얻은 배움을 바탕으로 웹 개발이라는 제 진로에도 AI를 적극적으로 접목해, 변화에 앞서가는 개발자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DEU 캠퍼스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도전학기제(꿈드림설계) 참여 후기



정우진

배재대학교
AI소프트웨어공학부
정보보안학전공
학생

도전학기제란?

도전학기제(꿈드림설계)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의 수동적이고 획일화된 전통적 교육과정의 한계를 넘어, 학생 스스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학습활동을 직접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 교육과정입니다. 학생이 자신의 전공과 연계하여 지역사회문제 해결, 취창업 도전, 문화예술 창작, 창의융합 연구, 전공심화, 국제교류, 융복합 전공설계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자유롭게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폭넓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개인 혹은 소규모 팀을 구성해 지도교수님의 지도를 받으며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프로젝트의 결과에 따라 정규 학점이 인정되고,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지원금도 지급됩니다. 또한,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학생에게는 학기 말에 열리는 도전학기제 성과발표회에서 발표할 기회와 함께 추가적인 부상이 주어집니다.

무엇보다 도전학기제의 가장 큰 매력은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진로와 경력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팀 프로젝트와 지도교수와의 협업을 통해 실무 역량과 소통 능력까지 함께 키울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도전학기제에 참여하게 된 계기

최근 인공지능과 IoT 등 첨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보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쇼핑몰이나 공항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법 카메라

(CCTV)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접하며, 단순히 영상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위험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CCTV 영상에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탐지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싶다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비정상 행위 탐지”라는 주제로 도전학기제 프로그램에 신청했습니다.

도전학기제를 이수하는 과정에서 딥러닝 기반 객체 인식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해 보는 경험을 하고자 했습니다.

▣ 도전학기제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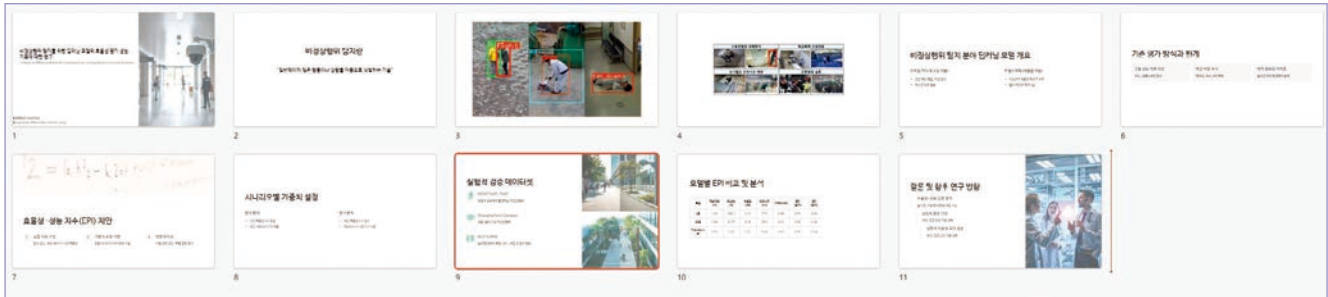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이전부터 함께 공부해 왔던 정보보안학과 학생과 함께 2인으로 팀을 구성하여 각자 모델 개발 및 학습, 테스트와 평가, 논문 리뷰 등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의 성격에 맞는 지도 교수님을 선정해 1~2주 간격으로 정기적인 조언을 받으며 진행 상황을 설정했습니다.

프로젝트는 먼저 비정상 행위 탐지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관련 논문을 찾아 읽고, 다양한 데이터 셋을 분석하며 연구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이후에는 소스코드 분석과 모델의 구조에 대해 이해하며 딥러닝 모델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모델 학습이 끝난 뒤에는 성능 개선과 테스트를 반복하며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전학기제 성과발표회에 참여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지도교수님의 조언과 피드백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단계에서부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에도 정기적인 피드백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방향성을 올바르게 잡아갈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의 결과물로는 비정상 행위 탐지 인공지능 모델, 관련 논문 리뷰 자료와 다양한 딥러닝 모델 비교

분석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나아가 실험했던 결과를 기반으로 국내 학술대회에 논문을 투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Contents

- 01 Abstract
- 02 Introduction
- 03 Problem Statement
- 04 Methodology
- 05 Dataset
- 06 Conclusion

Methodology (2/4)

```

            graph TD
            A[Video Sequence] --> B[Object Segmentation]
            B --> C[Object Classification]
            C --> D[Object Tracking]
            D --> E[Action Recognition]
            E --> F{Is Abnormal Event?}
            F --> G[Abnormal Event]
            F --> H[Normal Event]
            
```



느낀점

도전학기제를 통해 기존 교과과정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프로젝트를 직접 설계하고 실행해 볼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팀원과의 협업, 지도교수님의 조언, 끈기 있는 탐구를 통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딥러닝 기반의 객체 인식 및 비정상 행위 탐지라는 주제를 실제로 구현해 보면서 이론적 지식이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논문을 읽고 분석하는 능력,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설계하는 창의적 사고력, 팀 프로젝트에서의 소통과 협업 능력 모두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성과발표회에서 다양한 팀의 프로젝트를 보며 자극을 받았고, 발표 후 있었던 질의응답 세션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한계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분초를 다투는 환경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비정상 행위 탐지 시스템 개발 연구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도전학기제는 단순히 학점을 취득하는 것을 넘어, 자기 주도적 학습과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도전학기제를 통해 자신의 꿈과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도전의 가치를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학생사례

Student case

PSC학습공동체 에세이 (기억과 공존의 다리)



박초윤

부산외국어대학교
글로벌자유전공학부
학생

PSC 학습공동체 활동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서,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의 갈등과 이해, 그리고 이를 해결하려는 공동의 노력을 경험하는 값진 시간이었다. 특히, 나는 이 활동을 통해 비슷한 문화권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다른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감수성을 지닌 한국, 중국, 일본 간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일제강점기라는 한국과 일본 간의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한 탐구가 가장 인상 깊었다.

PSC 활동의 첫 시작은 각국의 기본적인 문화 요소들을 비교하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의복, 언어, 식생활, 예절, 가족 구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세 나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표면적인 문화 이해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문화적 차이의 표면만을 아는 것으로는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곧 깨달았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개인의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집단보다는 가족 중심의 문화가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한국은 정(情)을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문화적인 틀 속에서 같은 사건이나 역사적 사실조차 전혀 다른 시각으로 해석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문화 상대주의의 개념을 도입하여, 각 문화가 처한 환경과 배경 속에서 그 나름의 이유와 논리가 존재함을 인식하려 노력했다.

활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단순한 문화 차이보다 더 복잡한 문제, 즉 역사적 갈등으로 초점을 옮기게 되었다. 그 중심에는 일제강점기라는 한국과 일본의 복잡하고도 민감한 과거가 자리하고 있다. 일본 학생들과의 교류 혹은 일본 관련 자료를 통해서 같은 역사를 다르게 기억하고 있는 양국의 시각 차이를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다. 또, 오늘날에는 이러한 역사를 미화시키는 경향도 높아지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를 억압과 착취의 시기로 기억한다. 수탈, 언어 말살 정책,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은 지금도 상처로 남아있으며, 이러한 역사 인식은 교육과 사회 전반에 깊게 스며들어 있다. 반면, 일본에서는 해당 시기를 비교적 간접적이고 완화된 방식으로 교육하거나, 심지어 회피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양국 간의 갈등이 단순히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뿌리 깊은 문화적·심리적 요인과의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러한 갈등을 단순히 '틀림'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다름'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우리의 PSC 학습공동체 활동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우리는 문화 갈등 해결의 출발점이 '상호 존중'이라는 데 동의했고, 과거의 사실을 직시하면서도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례를 비교 분석했다. 예컨대 독일이 나치 시대의 범죄를 어떻게 인정하고 사과했는지, 그 과정에서 사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참고하여, 일본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자세를 취할 수 있을지를 토론했다. 동시에 한국 역시 피해자의 입장에서만 머무르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접근과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활동에서 나는 특히 감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이성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기르기 위해 노력했다.

과거에 대해 분노하거나 상처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거나 혐오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배웠다. 또한, 과거를 기억하되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기억과 공존’의 균형을 배우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 일본 학생들이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고, 위안부 문제에 공감하며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문화적 오해는 대화와 교류를 통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는 희망도 품게 되었다. 나 또한 일본의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서, 그들의 입장과 감정도 이해하게 되었고, 이러한 태도는 나의 세계관을 더욱 확장시켜 주었다.

PSC 학습공동체 활동은 나에게 단순한 지식이나 경험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갈등과 오해를 넘어, 이해와 공존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한일 간의 갈등을 탐구하고, 그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했던 시간은 나의 사고를 더 깊고 넓게 만들어 주었다.

문화는 단순히 음식이나 언어, 의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곧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역사와 가치관이 축적된 삶의 방식이다. 이러한 문화를 이해하고 조화시키는 노력은,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적극적으로 맞서고 풀어나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나는 이 활동을 통해 과정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앞으로도 나는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과거를 이해하며,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글로벌한 시민으로 성장해 나가고 싶다. PSC 학습공동체의 경험은 그러한 나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다.



학생사례

Student case

글로벌서비스러닝 에세이

(공항 이용객 대상 서비스 지원 및 편의 증진 봉사활동)



이민지

부산외국어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학생

■ 새내기

작년에 비슷한 프로그램의 공항 봉사활동 공지가 올라왔을 때 신청을 하였으나 선착순 마감으로 참여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공항 봉사활동을 다녀온 동기들로부터 승무원을 목표로 하는 항공서비스학과의 전공생인 만큼 공항이라는 환경 자체가 서비스 러닝에 큰 도움이 되었고, 제복을 입고 캐리어를 끌고 지나가는 승무원들을 보면서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동기들의 이야기를 듣고 만약 올해 기회가 된다면 꼭 참여하여 봉사활동으로부터 동기부여를 받고 싶다는 생각으로 간절했습니다. 마침 우연하게 이번 년도 공항봉사 활동에 임할 기회가 오게 되어 감사했고, 이 기회를 통해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설렸습니다. 작년에는 놓쳤지만, 이번에는 놓칠 수 없다는 마음에 바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김해국제공항에서 첫째 날에는 본 활동에 임하기 전 우리가 활동하게 될 공항 내의 시설 위치를 파악하고자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항공사 담당자분의 안내를 받아 본 활동에 임하기 전의 도우미의 자세를 갖추 수 있었습니다. 5명은 각각 탑승권 확인 및 위탁 수화물 등 탑승 절차를 담당하는 에어부산 체크인 카운터, 사전 등록을 통해 빠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돕는 바이오 등록대, 입국장에서 지하철 위치, 버스 정류장 위치 안내를 하도록 돕고, 위치별로 한 명씩 지정하여 해당 위치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였고, 둘째 날에도 똑같이 같은 위치에서 돌아가면서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출국장에서는 질서유지 할 수 있도록 도우며, 2명을 지정하여 해당 위치에서 길 안내, 공항 내 시설 이용 안내 등 김해국제공항 도우미의 역할에 임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서비스 정신과 소통, 그리고 팀워크를 배웠습니다. 김해국제공항에서 게이트 위치와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 안내, 바이오 등록대 위치 안내, 바이오 등록대 이용 방법 안내 등을 통해 서비스 정신을 배울 수 있었고, 공항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먼저 선뜻 다가가서 도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이용객들이 계실 수도 있고, 부담스럽다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되어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공항 이용객분들이 나를 찾아주시는 것이 아닌 나를 찾아주실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항의 도우미이자 실무자로 임한 만큼 제가 먼저 다가가서 도움이 필요하신지 여쭙보았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오신 분들을 만나며, 영어로 짧게나마 소통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에게는 국제적 감각을 키울 수 있는 배움의 기회이자 배운 것을 나눌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이번 활동을 하면서 영어 회화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활동하기 전, 간단한 영어 회화 관련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찾아보고 ‘아, 이럴 때엔 이 표현을 사용해야지’ 하며 메모해두고, 자연스럽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발음이 외국인들에게 잘 이해될 수 있는지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항봉사 활동 이후에도 영어 회화 공부를 통해 좀 더 자신 있게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 영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꾸준히 영어로 말하는 습관을 지니며 영어 구사 능력을 갖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항이 아닌 다른 어느 곳에서라도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분이 있다면 서슴없이 도움을 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봉사활동이 아닌 다른 봉사활동이 있다면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다.

김해공항 봉사활동을 통해서 전공 수업으로 배웠던 서비스 정신을 실제 현장 속에서 활용하여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서비스란 단순한 친절을 넘어 고객의 상황을 이해하고 먼저 다가가는 태도이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자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외국인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나며 그들을 이해하고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외국인들과 영어로 소통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고 당황하기도 하였으나 자신 있게 대화를 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평소에는 영어로 말할 기회가 드물었던 저에게 외국인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경험은 언어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고,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승무원은 다양한 국적의 승객들과 영어로 소통해야 하는 직업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영어 사용 환경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외국인들과 함께 하며 자연스럽게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찾아보고자 고민하였습니다. 작년 7월 하계방학 동안 진행되었던 필리핀 해외 봉사 활동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였으나, 현지 마을 주민과 함께 집을 짓고 그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활동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해외 봉사에 참여하여 현지인들과 소통하고, 그 나라의 문화와 분위기를 직접 경험하며 더 넓은 시야를 갖고 성장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봉사활동을 통해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는 서비스 정신을 배울 수 있었다면, 해외 봉사 프로그램에서는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끼며 협력하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협동심과 인내심을 기르며 팀워크의 가치를 직접 느껴보고 싶습니다.

바이오 등록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던 중년 여성분을 도와드렸던 경험이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그분은 현장 등록까지 완료했으나 본인 생체 인증이 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계셨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보고자 저는 정중하게 등록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도해보실 것을 권유 드렸습니다. 함께 차근차근 절차를 다시 밟으며 원인을 살펴본 결과, 바이오 등록이 정맥으로 손바닥이 아닌 손목까지 밀착되어야 정맥 인식 인증이 완료된다는 점을 안내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후 등록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고, 여성분께서는 “드디어 됐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소소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이 경험을 통해, 도움을 받는 사람의 안도감과 진심 어린 감사가 주는 감동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여성분의 안도한 표정과 따뜻한 말씀이 생생히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이번 글로벌서비스 러닝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느낀 '배움과 나눔'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배움이 더해질수록 나눌 수 있는 것이 많아지고, 나눔을 통해 더 깊은 배움을 얻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을 통해 얻는 배움은 이론으로만 얻은 지식보다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배움의 잔상은 마음속에 남았으며, '나' 라는 사람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였습니다. 공항에서의 봉사활동은 배움과 나눔의 선순환을 몸소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움이 필요하신 공항 이용객 분들을 돕고,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과 소통하며 얻는 영어 회화 능력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공항 봉사 활동은 저에게 있어서 배움과 나눔의 장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눔은 단순한 행동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와 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다가가 안내를 도와주거나, 공항 시설 내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다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즐거운 여행길이 되도록 도와드리는 순간마다 저는 단지 '도와준 사람'이 아닌, 누군가에게 작은 감동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저에게는 단순한 봉사 활동을 넘어, 인간관계에서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전하는 작은 친절은 순간의 미소를 만들고, 그 미소는 나에게 더 큰 보람으로 되돌아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누는 행복은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제가 살아가는 이유를 더욱더 분명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나를 되돌아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 경험을 계기로 더욱더 배우고 나누면서 성장하겠습니다.

만약 글로벌서비스 러닝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신 학우 분이 제 주변에 계신다면 꼭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봉사 활동에 참여한 이유 중 하나가 동기부여를 얻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봉사 활동만 한 것이 아닌 그 속에서 얻어가는 것들이 많았던 '배움의 장' 속에서 이틀간 활동을 하였습니다. 직접 행동으로 옮겨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더 배울 기회가 많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고, 그 배움이 나를 한층 더 성장하게 하였습니다. 공항에서 전공 수업을 통해 배운 서비스정신을 활용해볼 수 있었던 것뿐만이 아닌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더 많은 것들을 얻은 것 같아 보람을 느낍니다. 경험은 얻는 것이 아닌 제가 만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알차고 깊은 경험을 하고 싶으시다면 글로벌서비스 러닝 활동에 참여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저는 도전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어떤 일든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휩싸였고, 분명 나에게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망설임보다 실행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영어 어학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마음먹고, 영어 학습을 위한 동아리에 가입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매주 목요일마다 동아리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 스스로에 대해 조금씩 쌓이는 듯한 자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멈췄던 운동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규칙적인 생활과 자기관리를 통해 나 자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매일 1시간씩 운동을 하고 있고, 그 덕분에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단단해지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와 행동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이 작은 노력이 언젠가 큰 결실로 이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이들 간의 공항 봉사 활동을 통해 배운 점도 많고, 기억에 남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론으로 배웠던 지식이 기반이 되어 실질적인 역량을 키우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어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짧으면 2주, 길면 한 달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면 나를 더 깊게 알아가고 배움의 폭이 더 넓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첫째 날엔 오늘 한번 해봤으니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둘째 날엔 하루가 더 주어진다면 오늘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에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아쉬운 만큼 여운이 많이 남았던 활동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우연한 기회로 글로벌서비스러닝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틀보다도 더 많은 경험을 통해 배우며 성장하리라 생각합니다.



외국인 남성 승객이 짐 보관소 위치를 문의하고 있는 모습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외국인 승객들을 돕는 모습



외국인 승객에게 필요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경청하는 모습



봉사활동 마무리 후 수료하는 모습

학생사례

Student case

그린빈 카페, 지구를 담은 한 잔



김태희

삼육대학교
 창의융합자유전공학부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삼육대학교 창의융합자유전공학부 새내기 김태희입니다. 우리 대학은 자유전공학부 교과목(SU-PREME Project)으로 PjBL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 [그린빈 카페]를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업가이신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사업가의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창업을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수프리미 프로젝트 '그린빈 카페, 지구를 담은 한 잔'은 저의 오랜 열망을 실현해 준 수업이었습니다.

그린빈 카페는 커피, 시그니처 음료, 디저트를 직접 제작해보고 실제로 팀을 이루어 팝업 카페를 운영하는 체험형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교수님의 지원을 받아, 함께 마음 맞는 동료들을 구성하여 팀을 만들고, 작게나마 창업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전공융합형 프로젝트로 ESG를 실천하는 공익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그린빈 카페 프로젝트 수업의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을 꼽자면 단연, 팝업 카페 운영입니다. 단 하루 동안 운영되었지만, 이 하루를 위해 메뉴를 개발하여, 제품을 직접 만들어보고, 브랜드 네이밍과 로고도 제작해 보았습니다. 역할을 분담하고, 마치 기업 운영과도 같은 체계를 갖추어 진행하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카페를 운영하게 됐을 때, 모르는 분들에게 직접 홍보하며 카페 고객 유치를 위한 홍보전략을 세우는 과정도 재미있었습니다. 고객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았을 때는 정말이지 희열이 느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어떤 방식의 마케팅을 좋아하고, 어떤 방식에 가장 만족하는지 짧게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총장님께서 깜짝 방문하여 격려해 주시니 힘든 줄도 모르고 신이 나서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제작한 메뉴판과 신제품

카페 재료를 발주하는 단계에서 금전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회계 지식을 갖춘 실력 있는 팀원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리더로서의 책임감때문에 부담감을 느꼈으나, 팀원들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리더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순간순간 부딪히는 역경을 팀원들과 함께 극복해내며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GREEN PLAY라고 이름 붙인 우리 팀은 소통이 아주 잘 되는 팀이었습니다. GREEN PLAY는 처음 컨셉에서 변경한 것으로, 일부 팀원의 컨셉 변경 요청을 수용하여 투표로 컨셉을 변경한 것입니다.

공강 시간을 활용하여 자주 모였으며, 때로는 밤 늦게까지 팀원 전체가 함께하며 소통하였고, 모두 한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졸업 후에 창업하겠다는 생각이 더욱 구체화 되었습니다. 카페 경영은 앞으로 제가 하게 될 창업의 훌륭한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카페 운영을 준비하면서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깨닫고, 생분해성 포장지를 활용하여 환경 오염 문제를 예방하리라 다짐하였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끌 사업에서 이윤보다는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보존하는 일을 우선할 것입니다.

저는 그린빈 카페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리더의 자질을 배우고, 창업의 길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환경을 보호하여 사회 공익을 위해 발전하는 사업가의 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빈 카페 프로젝트를 위해 열심히 애써주신 교수님과 존경하는 TA 선배님들, 삼육대학교 교직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깜짝 방문한 총장님과 찰칵, 사진 한 장

학생사례

Student case

학생에서 혁신가로 '학생교육혁신단' 우리의 성장보고서



김현수

숙명여자대학교 공과대학
소프트웨어학부
데이터사이언스전공
학생

2024년 꿈에 그리던 대학에 입학한 후 새내기의 설렘이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바뀌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학술 동아리, 자격증, 학점, 어학 능력... 학교 가는 길이 익숙해지기도 전에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는 주변 학우들을 보며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루하루가 고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발견하게 된 활동이 바로 '학생교육혁신단'입니다. 어느덧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학생교육혁신단원으로 1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도적 성장을 이끌어준 학생교육혁신단,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 학교 제도와 비교과 프로그램을 알리고, 더 많은 학생과 나누다

저는 전공 공부도 좋았지만,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매일 같이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WISE)을 둘러보다 우연히 '학생교육혁신단'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제도를 잘 모르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지만,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교의 교육혁신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실제로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져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학생교육혁신단에서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학우들이 학교에 훌륭한 비교과 프로그램과 교육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점이 늘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4명으로 구성된 팀원들과 주제를 정하고, 관련 내용을 자세히 조사한 뒤 카드뉴스와 영상을 제작해 널리 알리는 데 힘썼습니다.

또한 숙명행복성장주간에는 '나의 비교과 눈송유형 찾아서'라는 주제로 오프라인 부스를 열어, 학우들이 비교과 제도에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형 이벤트를 기획하여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벤트 기간에 예상보다 많은 학우들이 참여하였고, 그만큼 뿌듯하고 기분 좋았던 순간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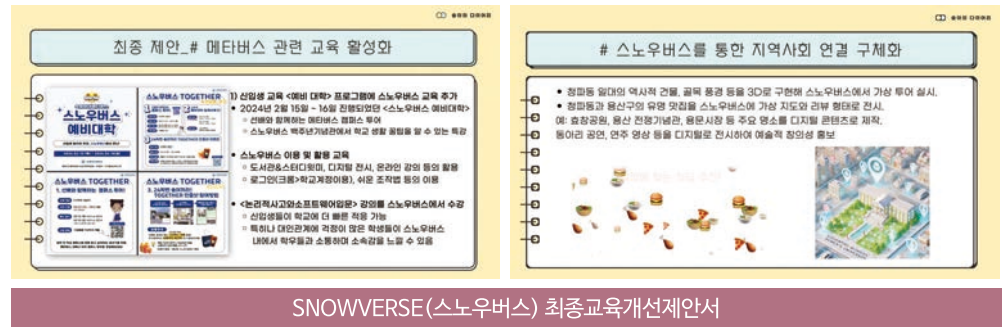


숙명행복성장주간 홍보부스 운영

III. 교육 개선을 위해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다

학생교육혁신단의 또 다른 핵심 활동은 ‘교육 개선 제안’이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며 평소 “이 부분이 좀 더 개선되면 좋겠다”고 느꼈던 작은 불편함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의 공식 메타버스 플랫폼인 ‘SNOWVERSE(스노우버스)’는 다양한 기능이 있어 편리하긴 했지만, 강의를 듣거나 스터디 활동을 할 때에 사소한 불편함이 반복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SNOWVERSE(스노우버스)를 주제로 개선 제안을 기획하여, 학우들에게 더 나은 사용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숙명여대에 재학 중인 학우 약 500명을 대상으로 SNOWVERSE(스노우버스) 이용 경험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 데이터를 근거로 ①교육분야, ②전시분야, ③지역사회연계 분야 활성화 내용을 담은 최종 개선 제안서를 만들었습니다. 진행 과정 중 어려움도 많았지만, 한 학기 동안 팀원들과 함께 밤낮없이 고민하며 만들어낸 결과물이기엔 더욱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제안이 당장 실현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학교의 미래 교육에 작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으며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SNOWVERSE(스노우버스) 최종교육개선제안서

III. 학교를 바꾸며 내가 바뀐다

학생교육혁신단 활동을 하며, 학교에 애정을 가지고 작은 아이디어라도 실현해보려는 용기를 가진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학생교육혁신단 활동과 더불어 총학생회의 ‘교육자치국’ 활동을 병행하며 교육혁신을 위한 여정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배우고, 행동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처럼 처음 대학에 들어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새내기들에게 이 활동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스펙을 쌓는 활동이 아니라, 학교를 더 나은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진정한 ‘자기 주도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그랬듯, 학생교육혁신단은 분명 대학생활의 의미를 더 넓고 깊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학생사례

Student case

부산-경남권 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 6개 대학 시뮬레이션 기반 전문직 간 협력 교육 연수프로그램 참여 후기



이예림

인제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IPE 프로그램, 환자 중심 협력의 가치를 깨닫다!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진행된 IPE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저는 잊지 못할 경험과 소중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제가 참여한 IPE 프로그램은 'Interprofessional Education'의 약자로, 보건 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의 다양한 전문직 종사자들이 함께 학습하고 협력하여 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 모델을 의미합니다. 이번 IPE 프로그램은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남-부산권 6개 대학(고신대, 신라대, 동서대, 동명대, 동의대, 인제대)이 함께 참여하여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인제대학교 김해캠퍼스 본관(인당관)과 시뮬레이션 센터(약학관)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1일차: 어색함 속 설렘 가득한 첫 만남

첫 만남의 어색함도 잠시, 활기찬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이 시작되자 우리는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WHO가 제시한 6가지 역량 중에서도, 각자 속한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에 대해 생각해보며 주요 키워드를 칠판에 적어 붙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서로의 학과를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각자의 학과뿐만 아니라, 간호학과-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학과-작업치료학과, 간호학과-작업치료학과 등 두 학과 간의 관계는 물론, 세 학과의 공통점까지 함께 고민하고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서로 어떤 과목을 배우고, 어떤 목적으로 대상자나 클라이언트를 관리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보건-의료계 활동에 중요한 '의사소통'에 관한 재미있는 놀이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같은 제시어를 보고 그림을 그려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그림을 그릴수록 결국 정답과는 너무나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활동 외에 다양한 보드게임을 통해 어색함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우리는 서로 더욱 친해지고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1-2일차: 노인의 삶을 체험하며 쌓아 올린 팀워크와 공감!



점심 식사 후 오후에는 더욱 특별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리치료학과와 작업치료학과에서 실제 사용하는 물품들을 직접 착용해보고, 노인의 신체적 조건을 간접 체험하며 협동 게임을 진행한 것입니다.

고무줄로 탑 쌓기, 공을 굴려 컵에 넣기, 블록 쌓기 등 팀워크를 요구하는 다양한 협동 게임들이 이어졌습니다. 이 게임들은 단순히 즐거움을 넘어,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어주었습니다. 동시에 팀원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서, 매우 뜻깊은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1-3일차: 시뮬레이션 센터에서 만난 각 학과의 전문성!

팀워크를 다진 후, 우리는 인제대학교·백병원 시뮬레이션센터(약학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곳에서는 각 학과가 실제 현장에서 환자 치료와 회복을 위해 어떤 전문 지식과 장비를 활용하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각 팀은 30분씩 돌아가며 세 학과의 부스를 방문하여 실질적인 교육을 학생들이 서로서로 교육해주고, 직접 듣고 하였습니다.



간호학과에서는 심전도 측정, 말초 산소포화도 측정, 그리고 비강캐놀라를 이용한 산소 공급 실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물리치료학과에서는 편마비 환자를 위한 보행기(Cane) 사용법과 계단 오르기 실습을 통해 재활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고,



작업치료학과 부스에서는 운전 연습 기구와 Dynavision D2를 활용한 시지각 테스트를 직접 체험하며 각 학문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실질적인 체험을 통해 각 학과의 전문성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1-4일자 : 환자 중심 통합 목표 설정: 학생들이 스스로 이끌어낸 전문성 융합의 장!

저녁 식사 후에는 세 학과가 융합된 각 조별로 총 6개의 환자 케이스를 받아 분석하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며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활동에서 활용된 케이스는 각 대학 및 학과의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이 고민하여 엄선된 좋은 사례들을 준비해 오셨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더욱 전문인이 된 것처럼 몰입하여 학습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논의 과정은 학생들 각자가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접하는 복합적인 사례였던 만큼, 이번 활동에서는 대상자 중심의 건강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고, 대상자 중심의 전문적 간 통합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각자의 학문적 지식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환자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 2일차, 전날의 지식을 실제에 적용하다: 열정 가득한 역할극과 발표 현장!

2일차, 우리는 다시 인제대학교 김해캠퍼스로 모였습니다. 전날 밤 치열하게 논의했던 환자 케이스를 바탕으로, 이제는 어제 각학과 체험을 진행했던 인제대학교 약학관 시뮬레이션 센터의 체험실들을 활용하여 직접 적용해보는 역할극 시간을 가졌습니다.



PPT 제작과 역할극 준비에 모두가 열정이 넘쳐 완벽하게 해내려는 탓에 시간이 조금 부족하여 완벽하게 완성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조원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끝까지 준비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다 된 후, 대강당에 각 조들이 한자리에 모여 발표하고 직접 시범을 보였습니다. 각 조별로 다루는 주제가 다양했던 만큼 역할극 컨셉도 다채로웠습니다. 뉴스 속보 형식으로 상황을 전달하는 조도 있었고, 조별로 임의의 대상자를 설정하여 직접 휠체어를 태우거나 실제 병원처럼 환자 인수인계를 진행하는 등, 그야말로 질 높은 역할극들이 펼쳐져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 아쉬운 마무리, 그리고 미래를 향한 소중한 발걸음!

모든 조의 발표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우수상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6개의 조 모두가 너무나 치열하고 훌륭한 발표를 선보였기에, 교수님들께서는 우수상을 발표하고 상을 수여하는 것에 대해 무척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만큼 모든 학생들이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IPE 프로그램은 아이스 브레이킹 게임부터 협동 게임, 시뮬레이션 센터 체험, 환자 케이스 스터디, 그리고 역할극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채로운 활동들로 가득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저희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스스로 성장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는 각자의 전문 지식을 열정적으로 나누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 문제를 해결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흥미를 느꼈고, 교수님들께서도 저희의 이런 모습을 보며 함께 배움의 기쁨을 나누셨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받는 것을 넘어,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진정한 상호 학습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이처럼 값진 활동을 통해 저는 미래의 보건 의료인이 되는 길에 필요한 협력과 소통, 그리고 환자 중심 사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IPE 프로그램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우리 모두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자, 앞으로 나아갈 길에 든든한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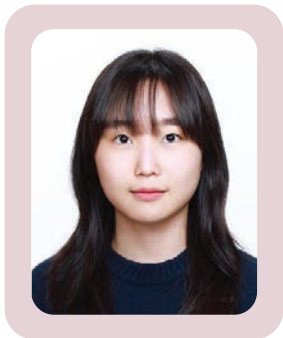


학생사례

Student case

일상 속 불편함을 창업 아이템으로 전환하다.

Turning Everyday Inconveniences into a Business Idea.



서미경

청주대학교
지적학과
학생

우리집 말썽꾸러기 고양이 '애기'는 건강이 좋지 못했다. 건강검진 결과, 음수량이 적어 방광에 배출되지 못한 찌꺼기가 쌓여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반짝이는 물그릇을 여러 개 배치하며 물에 흥미를 갖도록 해보았다. 그러나 애기는 물그릇을 발로 툭툭 건드리며 장난만 칠 뿐, 물을 먹진 않았다. 그래서 주사기에 물을 넣어 억지로 먹여보기도 했다. 그랬더니 애기가 콜록콜록 기침하며 힘들어했고,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보니 나도 속상하고 힘들었다.

마지막으로 시도한 방법은 간식에 물을 섞어주는 일이었다. 애기는 식탐이 매우 강해서, 간식에 물을 타서 줘도 아주 잘 먹었다. 이렇게 '간식탕'을 제조해서 주니 물을 3-40ml씩 마셨다. 그렇게 매일 간식탕을 타 주다 보니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사람도 매일같이 아이스크림, 초콜릿 등 간식을 먹으면 몸에 좋지 않은데, 고양이라고 다를까? 고양이에게 매일 간식을 먹여도 되는 걸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그래서 나는 직접 행동했다.

간식을 수십 가지 구매해서, 뒷면에 품질표시 항목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영양 성분을 분석하고 비교하며 뭐가 몸에 좋은 건지 연구했다. 염도계도 구매해서 어떤 간식이 짠지 싱거운지 측정했다. 논문도 찾아보며 공부했다.

결론은 '믿고 먹일 간식이 없다.'였다. 그래서 나는 내가 직접 간식을 만들어서 먹기로 결심했다. 그러던 와중 교내 창업교육센터의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 창업교육센터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워크숍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그곳에 참석해 내 아이템인 고양이 간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써보았다. 처음 써보는 사업계획서라 어떻게 써야할지 막막했는데, 전문 멘토님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무사히 작성할 수 있었다.

마침 교내 우수창업아이템경진대회가 진행중이어서, 내가 작성한 사업계획서로 응모했다. 멘토님들의 도움 덕분에 서류 심사에 합격했고, 열심히 발표 자료를 만들어 창업 아이템을 발표했다. 심사위원분들께서 나의 열정과 진심을 알아주신 것인지, 감사하게도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받은 지원금으로 고양이 간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막상 지원금을 쓰려니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정말 막막했다. 그래서 창업교육센터 연구원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시제품 제작을 진행했다. 공장에 전화해 최소주문수량은 얼마인지, 샘플 제작은 가능한지, 이런 재료를 넣어서 제작 가능한지, 언제까지

가능한지 등... 많은 점을 이야기했다. 전화로 해소되지 않는 사항도 많아서 고속버스를 타고 전국에 있는 공장을 직접 찾아다녔다. 내가 학생이라는 점을 좋게 봐준 공장이 한 곳 있었고, 그곳에서 샘플을 여러 차례 제작하며 내가 원하는 간식이 나올 때까지 수정했다.

이 과정이 순탄하진 않았다. 내 본분은 학생이기에 수업이 매일 있었는데, 수업 시간 도중에 공장에서 오는 전화라거나, 과제도 해야하고 시험 준비도 해야하는데 오늘까지 제출해야 하는 급한 서류 작업 등 곤란한 일들이 몇 번 있었다. 그래서 시간 단위, 분 단위로 계획을 세워 생활하고 잠도 줄여가며 고양이 간식을 만드는 데에 열중했다.

그럼에도 쉽지 않았다. 내 전공은 식품 또는 반려동물과 전혀 연관이 없었고, 아는 지식도 요 몇 달 공부한게 전부였다. 간식 제형이 너무 묽게 나와서 급여하다가 손에 다 묻는 경우도 있었고, 몸에 좋은 성분을 잔뜩 넣었더니 기호성이 떨어져 고양이가 먹지 않기도 했다. 그래서 계속 수정하고 또 수정했다. 그렇게 30회 이상 수정한 끝에 기호성도 좋고 적절한 물성을 가진 간식이 나왔다.

외부 지원 사업에도 여러 개 선정이 되어 샘플 제작에 필요한 돈을 충당했다. 그 과정 또한 쉽지 않았지만, 창업교육센터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전문가 멘토님들께 여러 사항을 배우고 학습하며 진행했더니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된 것 같다. 여러모로 창업교육센터의 도움을 많이 받아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

제조에 성공한 간식은 양산을 해서 우리집 고양이 '애기'에게 먹고 있다.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고민을 할 거라 생각해 인터넷을 통해 간식이 필요한 양육자들에게 판매도 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 잘 풀렸고 그 속에서 배운 점과 느낀 점이 많아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아니면 언제 이렇게 또 온 힘을 다해 열정을 불태워 무언가에 집중할 수 있나 싶기도 하다. 더불어 이 자리를 빌려 항상 응원하고 지원해 주신 창업교육센터의 모든 선생님께 감사를 표한다.



학생사례

Student case

학생의 시선으로 놓은 교육의 다리 재학생 교육 기획 · 평가단 활동



최정민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학생

▮ 재학생 교육 기획 · 평가단으로서의 첫걸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는 교육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스스로 사고하고 이를 적용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적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범대학 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저는, 이러한 역량을 더 기르고자 하는 마음과 교육현장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재학생 교육 기획·평가단 6기에 팀장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잘 알지 못했던 다른 과 학우들과 하나의 팀이 되어 한남대학교의 교육과정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보기 위해 고민하고 설계하는 이 경험은 다른 관점을 가진 학우들 간, 학교와 학생 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설계해 나가는 협력의 장이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재학생 교육 기획·평가단 활동을 통해 무엇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경험한 협력과 성장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 여러 학우들과 함께하는 협력적 의사소통의 장

프로그램은 타 학과 학생들과 4인 1조로 편성되어 진행되었고, 저는 5조의 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본 활동의 주된 목표는 각자 소속된 학과의 교육과정에서 개선점을 발굴하는 것이었으나, 제가 속한 사범대학은 이미 국가에서 정한 공식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개선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 팀은 초기 주제 선정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른 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렸지만, 팀원들과 지속된 논의 끝에 ‘한남대학교 전체 비교과 교육과정 개선안’을 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비교과 교육과정은 단순한 부가적인 활동이 아니라 전공 교육과정 이외에 다양한 가치를 함양할 수 있고 사회에 진출하기 전 여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영역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껏 전공에서

배운 이론들을 바탕으로 대학 교육의 틀에 적용하고자 노력하였고, 공급자(학교)와 수요자(학생) 간의 절충안을 고려하여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책을 고안하였습니다.

전체 비교과를 다루는 만큼 광범위한 정보에 대한 크로스 체크가 필요했으며, 아이디어의 중복 제안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에 등재된 수년간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엑셀로 목록화하고 관련 운영 자료와 선행 자료들을 탐독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교육개발센터에서는 주차별 활동 보고서 제출, 연구교수님과의 면담, 정기적인 피드백 제공 등을 통해 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였고, 재학생 대상 심층 인터뷰와 자체 설문조사도 병행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조에서는 외국인 재학생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가려져 있던 유학생들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조의 목표는 '혁신적인 교육 아이템을 제시하여 모두의 눈을 사로잡자!'가 아닌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하고 실현성 있는 제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런 것이 필요하다'의 제안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자 핵심 비교과 분류표를 직접 만들고, 단계별 위계와 마일리지 제도 개편 방향을 정리하여 책자를 제작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인정받아 최종 발표회에서 최우수 수상까지 이어졌고, 팀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활동 과정에서 수업 외 시간, 주말을 활용하여 팀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나누며 서로 다른 배경과 관점을 수용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것 같습니다.

나와 다른 환경을 거처온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이번 활동이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준 것 같아 좋았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크게 느낀 점은, 재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아 학교에 전하는 중간 다리 역할의 책임감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과 같이 평소 잘 드러나지 않았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해 주는 것, 그리고 그 의견들이 실제 개선안으로 도출되어 전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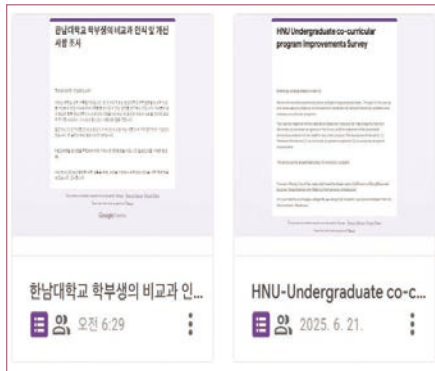
이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이유는 단순히 성취감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속한 학교에 대해 깊이 탐구하며 더 나은 학교 교육과정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는 점, 학교 개선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경험이라는 점은 굉장히 값진 기회였습니다.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아 실현 가능한 교육 개선안으로 바뀌거나 진심 어린 기획의 여정이었기에 앞으로도 계속될 재학생 교육 기획·평가단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더 나은 교육 환경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6기 재학생 교육 기획평가단 발대식



활동 사진 (회의)



한남대학교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비교과 인식 및 개선 사항 설문조사(한글, 영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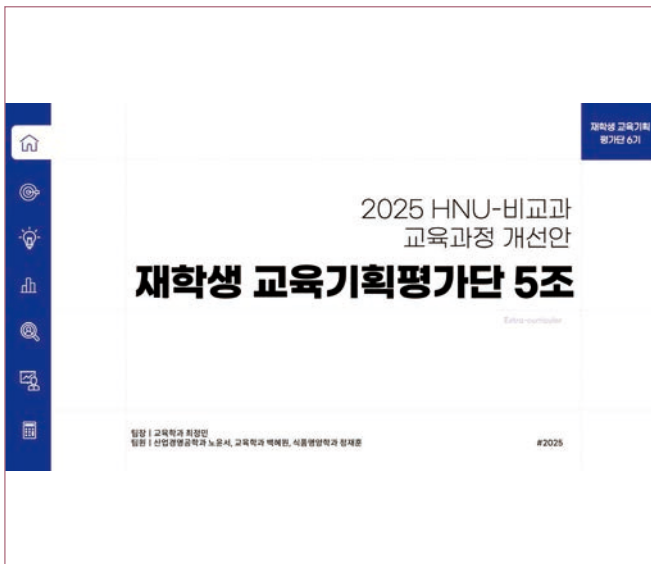
외국인 유학생과의 심층 인터뷰 진행



비교과 개선안이 포함된 책자 제작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기초 생활 안내 책자 제작



최종 결과 발표회 ppt



발표회 사진

대학혁신지원사업 소식지 제25호 게재 원고 모집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는
대학혁신지원사업소식지 통권 제25호(10월호)
발간을 위한 원고를 모집합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소식지 콘텐츠

대분류	주제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사례	대학혁신지원사업 주요 성과사례
	대학교육혁신 사례
	기타(연구·교육·사회·공헌 분야의 대학 소식)
기고문	미래 고등교육혁신정책 어젠다(agenda)
	환경불확실성 시대(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 등)의 대학교육 혁신전략
	국가발전(국가균형발전)과 대학의 역할
	기타(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 관련 주제)
행사소식	각 대학의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주요 행사
	기타 각 대학의 주요 행사 안내

원고응모대상

▶ 대학혁신지원사업 138개 회원교의 교원 및 직원, 학생

원고분량

▶ A4 2매 이내로 제한

행정사항

1. 제출자료 : 원고 및 이미지 자료(원고 제출자의 사진 및 자료 사진 원본)
2. 제출기한 : 2025.9. 19. (금) 17:00까지
3. 제출방법 : 원고를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4. 제출처 :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사무국 (이메일 : uispc0624@gmail.com)
5. 유의사항 : 해당 원고 공모 및 협조 요청은 희망자(대학)에 한하며,
제출 원고가 많을 경우 주제에 따라 게재여부 및 순서 등 조정 가능
6. 문의 :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사무국 ☎ 055) 320-3216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50834)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 197, PRIME의 생명공학관 106호
TEL. 055)320-3216 TFX. 055)320-3207 E-mail. uispc0624@gmail.com